

4일 Market Index			
↑ 코스피	6936.99	↑ 코스닥	1213.74
	(+338.12)		(+21.39)
↑ 금리 (미국 3년)	3.615	↓ 환율 (원/달러)	1476.50
	(+0.020)		(-6.80)



전자·차·통신업계 까지 성과급 두고 하투 확산

〈夏闘:노동계의 여름철 투쟁〉

산업계 전반 임단협 갈등

미국발 관세 압박과 중동 리스크 확대에 글로벌 경제의 위기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노동계의 '하투(夏闘)'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란 봉투법 시행에 따른 원·하청 교섭 요구가 확대되는 상황 외에도 반도체 업계의 역대 성과급 요구 상황이 산업계 전반에 노사간 대립의 불씨를 키우는 모습이다. 노조측의 공세적 투쟁기류에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이를 지켜보는 주주, 투자자 등 직접 이해당사자와 국민들의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성과급 문제로 파업위기에 앞선 삼성전자의 신제윤 이사회 의장은 "최악의 상황이 생기면 국가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노사 모두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며 노사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총예고에 "노사 모두, 설 자리를 잃을 것" 신제윤 의장 '대화 해결' 촉구

삼성바이오, 계열사 첫 파업 돌입 LG U+, 임금 8%인상 등요구하고 현대차·기아, 한국GM도 노사대립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비롯해 현대자동차, LG유플러스 노조 등이 성과급을 둘러싸고 노사간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 산업계 하투는 삼성그룹 계열사가 분위기를 이끄는 모양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일 시작된 총파업을 5일까지 진행했다. 앞서 지난 4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재로 노사 면담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삼성전자 노조도 총파업을 전제로 임금과 성과급 협상을 진행중이다. 삼성그룹 계열사가 실제 파업에 돌입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노사간 고강도 갈등의 불씨가 된 것은 성과급 배분 기준과 연동 방식이다. 영업이익·순이익 등 경영 성과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하면서 기업 간 성과급 수준 비교가 급속히 확산됐다. 특히 SK하이닉스가 초과이익분배금(PS)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이익 10%를 성과급으로 활용하면서 역대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다른 기업 노조의 눈높이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불러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의 경우 단체협약 요구안에 신규채용, 인사고과, M&A(인수합병) 등 핵심 경영사안에 대해

노조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균 14% 수준의 임금 인상과 임직원 1인당 3000만원 격려금 지급 등도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회사 영업이익의 15%를 상한선 없이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통신업계도 비슷한 흐름이다. LG유플러스 노동조합은 성과급 증액을 요구하며 사측과 대립하고 있다. 노조의 요구안에는 임금 총액 8% 인상, 생산성격려금(PI)·성과급(PS) 평균임금 산입, 호칭 하한 연봉제 신설, 영업이익의 30% 성과급으로 지급, 우리사주 200주 분배, 임금 삭감 없는 주 35시간 근무, AI 도입을 이유로 한 인위적 구조조정 금지 등이 담겼다. 지난해 임단협에서 임금 총액 기준 4.16% 인상에 합의했던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완성차 업계도 성과급을 둘러싸고 갈등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핵심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완전 월급제 시행,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한 정년 연장 등을 포함하며 단순 임금 인상을 넘어 고용 안정과 산업 전환기 대응을 전면에 내세웠다. 기아 역시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지난해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GM은 정기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함께 지난해 GM 총매출의 10% 가운데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요구안에 담았다. 비정규직을 포함한 조합원 1인당 약 3000만원 수준이다.

이날 삼성전자 사태와 관련 신제윤 이사회 의장은 임직원 메시지를 통해 "국가 기반산업인 반도체산업은 타이핑과 고객 신뢰가 핵심"이라며 "개발과 생산 차질, 납기 미준수 등이 발생하면 근본적 경쟁력을 잃게 되고 회사가치가 하락하면 주주, 투자자, 임직원, 지역사회가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출과 세수감수, 환율상승 등으로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지금은 임직원 모두가 합심하고 진정성있는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업계 관계자는 "올해 제조,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임단협 갈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노조가 과격적인 요구안을 내세운 배경에는 반도체 기업들의 성과급 잔치 열풍이 한몫했다"고 말했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어린이날, 청와대 와서 신나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제104회 어린이날 청와대 초청 행사'에서 어린이들과 국무회의가 열리는 세종실로 향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뉴스

반도체의 힘, 뭉치돈 유입 '7000피 눈앞'

외국인 하루에 코스피 3조 사들여 삼전·하이닉스 등 반도체주에 집중 개미 '포모 심리' 예탁금 역대 최대

6936.99, 코스피가 7000까지 63.1포인트를 넘겨주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이 증시 주변을 맴도는 시중 뭉치돈과 위험 자산을 쫓는 외국인이 한국 증시를 7000선에 올려놓을 것으로 본다. 이들을 증시로 이끄는 힘은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한 이익 모멘텀이 자리한다.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동안 '팔자'에 나섰던 외국인이 국내 증시로 되돌아오고 있다. 지난 4월 한 달간 코스피에서 1조1282억원어치 순매수한 외국인은 5월 첫 거래일인 4일 하루 동안에 2조9457억원어치를 사들였다. 특히 반

도체 등 대형주를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다. 5월 첫날 삼성전자를 1조1971억원, SK하이닉스를 1조6916억원 각각 사들였다.

시장 전문가들과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코스피 7000 돌파는 시간 문제라고 말한다. 근거는 인공지능(AI)이 이끄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과 외국인 매수세다.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액은 858억9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8.0% 증가했다. 일등 공신은 반도체다.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173.5% 증가한 319억 달러로 집계됐다. 3월(328억3000만 달러)에 이어 두 달째 300억 달러를 넘어서는 수출액을 달성했고, 13개월 연속으로 월간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

웠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주도주인 반도체의 실적 모멘텀이 외국인 패시브 자금에게 매수 유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개미들의 '포모(FOMO·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심리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기준 개인 투자자 예탁금은 129조7321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음 날에도 124조 원대를 유지했다. 레버리지를 활용해 수익 확대에 나서면서 '빚투'도 다시 확산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지난달 29일 처음으로 36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30일에도 35조7131억원을 기록했다. <2면에 계속>

/신하는 기자 godhe@



metro

"선박 피격... 韓, 호르무즈 임무 가담할 때"

美 트럼프, 파병 당위성 부각

미국이 '호르무즈 해상작전'에 돌입한 데 이어 이란은 아랍에미리트(UAE)에 다시 무력을 가했다. 미군의 작전수행 과정에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의 교전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은 한국의 대이란전쟁 참전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 국적 해운사 HMM의 상선 폭발사고와 관련해, 이란군에 피격된 것이라며 한국군 파병의 당위성을 부각했다. <관련기사 2면>

페르시아만 일대에 주둔 중인 미군은 4일(현지시간) '프로젝트 프리덤'(해방



작전)을 개시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정박 중인 선박들의 항행·탈출을 지원한다는 게 요지다. 이에 이란은 미국이 휴전논의 지속을 위한 전제조건을 뒀다며 맞대응에 나선 상황.

주요 외신은 미군이 해방작전 수행 첫날부터 군사력을 동원했다고 보도했다. 항행을 시도하는 상선을 호위한다는 명분이었다. 미군이 각국 유조선·화물선 등의 해협 진출입을 지원함에 따라 이란군은 즉각 저지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양측이 교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우리 정부 발표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오후 3시10분쯤 UAE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HMM 나무' 호 기관실에서 폭발이 발생했다. 페르시아만에서 오만만·아라비아해 쪽으로 향할 시 양쪽을 잇는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하기 직전의 해역이다. 두바이 앞바다에서 멀지 않은 곳이다.

이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6명 등 총 24명이 탑승해 있었다. 다행히 폭발로 인한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정부가 사태 파악에 나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보복 공격이 원인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4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국방부, '계엄 병력 동원' 김정근 준장 등 3명 파면·1명 해임
▲장동혁 "李, 공소취소 특검 등 온갖 폭탄 지신 뒤로...투표가 막는 길" /사진 뉴스

▲與 "정진석, 자숙은커녕 뻔뻔하게 공천 요구... 국민 기만"
▲홍준표 "정권 망쳐놓고 나만 살겠다고 출마... 뻔뻔하다"

▲국정자원, 2417억 통합구축... '화재 폐원' 대전 투자 최소화
▲美 코리아데스크 첫 회의...강경화 "한미동맹, 경제 아울러"

韓 경제 ‘고유가 장기화’ 먹구름… 성장률 1.9% 붕괴 가능성

ADB 수석 이코노미스트 간담회
중동발 ‘공급망 리스크’ 충격 확산
‘추경 대응·반도체 호황’ 완충 작용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는 선 그어



앨버트 파크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4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간담회를 갖고 있다. /한국은행

앨버트 파크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중동 사태 장기화로 한국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인 1.9%를 밑도는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파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4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한국은행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중동 사태 관련 성장률 하방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반도체 호조를 감안하더라도 한국 성장률 전망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ADB는 이번 분석이 공식 전망 수정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압둘 아비야드 ADB 부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영향은 전망 수정이 아니라 한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하방 압력을 별도로 분석한 것”이라며 “반도체 경기 호조와 4월 추가경정예산 등 정책 대응이 하방 압력을 완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DB는 지난달 발표한 아시아개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당시 전망은 중동 사태가 조기에 안정되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했지만, 이후 에너지 공급 차질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부

담이 커졌다는 게 파크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설명이다.

그는 “업데이트된 분석에서 강조한 점은 공급 차질이 더 지속적이고 장기화될 것으로 본다는 것”이라며 “분쟁이 끝난 뒤에도 유가는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ADB는 새 기준 시나리오에서 올해 유가가 평균 배럴당 96달러, 내년에는 80달러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가정했다. 심각한 하방 시나리오에서는 유가가 올해 평균 150달러, 내년 평균 140달러를 기록하고, 최악의 경우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스트레스 분석도 제시했다.

중동 지역 에너지 인프라 훼손도 공급 차질을 장기화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ADB는 액화천연가스(LNG) 액화 설비의 약 16.9%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카타르 라스라판 시설 일부는 복구에 3~5년이 걸릴 수 있다고 봤다.

고유가 충격은 비에너지 원자재와 식품 가격으로도 번질 수 있다. ADB 분석에 따르면 2월 말 대비 4월 말 요소 가격은 85.2% 올랐다. 요소와 암모니아 가격 상승은 비료와 식품 가격에 영향을 주고, 플라스틱 원재료 가격 상승은 포장

재와 제조업,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 반도체 수출 호조가 성장 하방 압력을 일부 상쇄할 수 있는 요인으로 제시됐다. ADB는 한국의 1분기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6%를 기록한 배경에 인공지능(AI) 수요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가 있다고 평가했다.

파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AI는 계속 남아 있을 구조적 변화”라며 “한국은 앞으로도 이 흐름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반도체 생산에도 중동산 소재와 에너지 투입이 필요하다”며 “분쟁이 장기화되면 글로벌 반도체 수요 붐의 성장 효과도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속경기침체)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파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동 사태는 성장을 낮추고 물가를 높이는 방향의 압력을 만든다”면서도 “한국은 AI발 반도체 수출 호조가 있어 큰 스태그플레이션 문제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사마르칸트(우즈베키스탄)=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영양

2026

자연이 차려낸
봄의
미식 한 상

자연이 차려낸
봄의
미식 한 상

기간 | 2026년
5월 7일(목) - 10일(일)

장소 | 영양읍내 및 일월산 일원

주최 | 영양군 주관 | VFTF 영양축제 관공재단

靑 “선박구출 작전 검토 중”

호르무즈 해협 선박화재 대처 논의
“선원피해 없어… 원인규명이 먼저”

청와대가 5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우리 선박 화재의 대처 방안을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사고 원인 조사와 안전 검사 등을 위해 조사관을 급파할 방침이다.

또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내 갇힌 선박을 구출하는 작전에 한국이 동참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낮 12시30분부터 전날 발생한 호르무즈 해상 선박 화재 관련 점검 및 대처를 논의하는 비서실장 주재 회의를 진행했다. 전날 오후 8시40분쯤 호르무즈 해역 내 정박 중이던 HMM 선박이 외부 충격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외교부는 이날 “전체 선원 24명 모두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선박의 화재도 진압 완료되어 추가 피

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다만 해당 선박의 정상 운항 가능 여부는 불확실해 인근 항구로 예인한 뒤 피해 상태 등을 확인하고 수리 예정”이라고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고 원인 조사는 두바이 현지의 한국선급 지부 인력을 즉각 파견해 안전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원인 규명을 위해, 선사 자체 조사와 별도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를 현지에 급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SNS에 우리 선박이 이란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제 한국도 이곳으로 와 이 작전에 동참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힌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원인 규명이 먼저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는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예진 기자 syj@



metro

글로벌 IB, 코스피 ‘8000’ 장밋빛 전망

» 1면 ‘반도체의 힘…’서 계속

외국계 글로벌 IB들은 한국 증시의 장밋빛 미래를 점친다. 중동전쟁 발발 이전에 코스피 상반기 목표치를 8000으로 제시한 노무라증권에 이어 골드만삭스와 JP모건도 코스피 목표치를 8000 이상으로 제시했다. JP모건도 한국 투자 전략 보고서를 내고 코스피 목표치를 최대 8500까지 제시하며, 한국을 아시아 내

최선호 시장으로 꼽았다. 다만, 반도체 정점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경제해야 할 이슈로 꼽힌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미국 투자자들은 ▲메모리 가격 상승세 둔화 ▲영업 마진 상단 근접 인식 ▲소비자 IT 기기(스마트폰, PC 등)의 수요 급감 우려 등을 근거로 메모리 반도체 투자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갈피 못 잡는 집값 전망... 전문가 "상승", 공인중개사 "하락"

수도권 공급난, 지방은 침체 우려
대출규제·세금부담에 조정론 확산
전세는 전국적으로 오름세 예상
신축 아파트 선호는 올해도 지속

올해 집값 전망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상승 전망이 절대적으로 우세했던 연초와 달리 전문가들은 집값이 여전히 더 오를 것으로 봤지만 일선 현장의 부동산공인중개사들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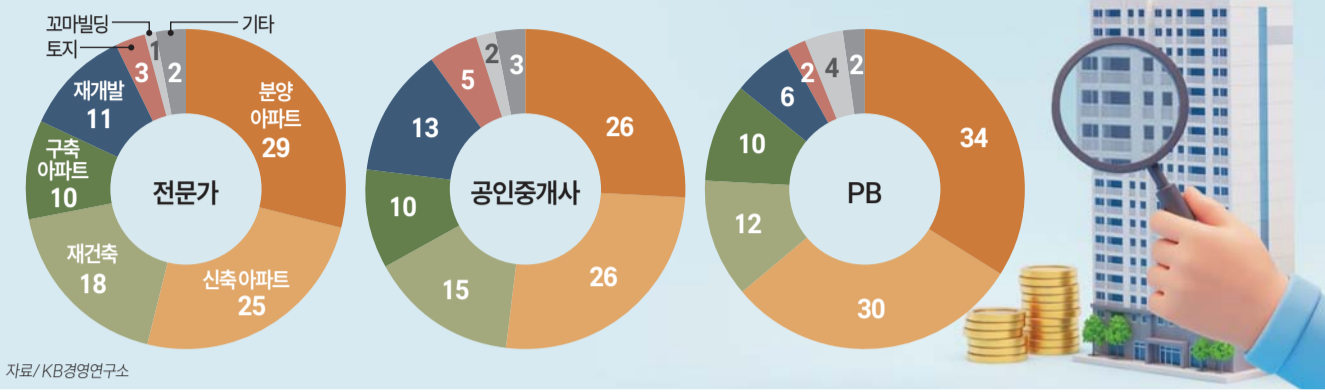
5일 KB금융그룹이 발간한 '2026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전문가와 공인중개사, 프라이빗뱅크(PB) 등 총 7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2026년 주택가격에 대해 전문가는 상승(56%), 공인중개사는 하락(54%)으로 전망했다. 지난 1월 설문조사 당시 전문가(81%)와 중개업소(76%) 모두 상승 의견이 우세했던 것에서 집값 조정을 예상한 비중이 확대됐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상승 전망이 시장 전문가 72%, 공인중개사 66%로 여전히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시장전문가와 공인중개사 모두 하락 전망이 우세했다.

집값 상승 요인으로는 주택공급 부족과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 인상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고, 대출규제, 세금 부담 등은 하락 요인으로 부각됐다.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박사는 "최근

전문가별 투자 유망 부동산 단위:%



주택시장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역별 양극화 양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공급 부족 및 공사비 인상 등 주택시장 불안요인이 여전히 잠재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수도권 공급 확대 및 부동산 관련 세금 등 정부 정책이 향후 시장의 흐름을 결정할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1.0% 올라 3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특히 서울은 7.4% 상승하며 전년(2.0%) 대비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고, 경기 지역은 1.1%로 상승폭은 크지 않았지만 특정 지역에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5개 광역시(-1.4%)와 기타지방(-0.6%)은 하락세가 지속됐다.

주택경기 과열 양상을 보인 수도권의 시장 안정화 시기에 대해서는 2026년 하반기에서 2027년으로 내다보는 의견이 많았다. 비수도권 주택경기 회복 시기에

대해서는 대다수 응답자가 2028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더 오를 것이라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올해 주택 전세가격에 대해 시장전문가의 83%, 공인중개사의 85%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승폭은 0~3%를 예상했다. 수도권의 경우 시장전문가(87%), 공인중개사(87%) 모두 전세가격

상승을 전망했으며, 3~5% 상승을 예상한 응답자의 비율도 높았다.

전세가격은 지난해 1.0% 상승하는 데 그쳤다. 매매가격이 크게 상승한 서울도 2.6%로 2024년 상승률(3.4%)을 밑돌았다. 올해도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열풍은 이어질 전망이다.

시장전문가의 29%, 공인중개사의 26%, PB의 34%가 분양 아파트를 투자

유망 부동산으로 꼽았다. 신축 아파트를 선택한 비율은 시장전문가 25%, 공인중개사 26%, PB 30%로 조사됐으며, 재건축이 그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주거의 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상황에서 주택 공급이 감소하자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며 "지난해에 비해 재개발에 대한 선호도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고서는 올해 주택시장의 7대 이슈로 ▲주택시장 양극화 완화 가능성 ▲서울 아파트 매매 수요의 변화 방향 ▲빠르게 진행되는 월세화와 임대차시장의 구조적 변화 ▲주택 공급시장의 위축과 향후 공급 여건 ▲노후 아파트 정비시장의 확대와 사업 여건 ▲변곡점을 지나는 비수도권 주택시장 ▲주택가격 상승기의 부동산 정책 등을 선정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하반기 집값 변수는 세금 다주택 규제에 시장 촉각

전문가들, 세제 영향 크게 봐
양도세·보유세 변화가 관련
월세 늘며 전세 비중 줄 듯

올해 부동산 시장의 핵심 변수는 정부 정책이 꼽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증가 시행과 함께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이 높고, 공급 대책의 성과에 따라 수도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어서다.

5일 '2026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주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시장전문가의 27%, 공인중개사 33%가 이미 시행이 확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증가를 1순위로 꼽았다.

이와 함께 최근 거론되고 있는 정책 중에서는 보유세율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또는 폐지가 향후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클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시장전문가와 공인중개사 모두 하반기 주택시장의 가장 큰 변수로 부동산 관련 세금을 꼽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향후 부동산 세금 관련 정책과 그 강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6·27 대책)을 내놓았으며, 이어 10월에는 규제 지역

확대, 대출 규제 강화와 함께 향후 세제 개편 가능성을 내포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들어서는 여러 차례 연장된 다주택자 양도세 증가 유예 종료로 예고하고,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등(4·1 대책) 고강도 규제를 병행하고 있다. 세제 개편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대차시장에서는 월세 거래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체 전월세 거래 중 월세 거래 비중은 2025년 62.7%로 전년 대비 5.1%포인트(p) 상승했으며, 최근 5년 평균(49.6%)보다 13.1%나 높았다.

향후 월세 거래 비중에 대해 시장전문가의 81%, 공인중개사의 60%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해 임대차시장의 중심축이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하는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증금 미반환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전세가격 상승과 대출 규제 등으로 월세를 선택하는 임차인이 증가했다.

임대차 가격 역시 월세시장에서 상승세가 뚜렷했다.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월세가격 상승률은 8.0%로 전세가격 상승률(2.5%)을 크게 상회했다. /안상미 기자



KB금융그룹 | 권역별 부동산 금융 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일상이 잠시 멈춰도 KB손해보험과 다시 출발

속상한 일이 생겨도 이상한 일이 생겨도
일상은, 멈춰선 안되죠

당신에게 그 어떤 일이 생겨도
일상의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KB손해보험이 곁에서 힘이 되겠습니다

[일상을 지키는 힘 | KB손해보험]

적자 기업에서 'AI 핵심 파트너'로... 현장에서 미래를 보다

SK 하이닉스의 대변인
AI시대의 총아로

① 최태원 회장의 베링

'적자기업' SK하이닉스가 AI시대 핵심 기업으로 거듭나기까지, 그 출발점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결단이 있었다. 통신과 에너지·화학을 넘어 그룹의 새로운 성장축을 찾던 그는 업황 침체와 시장의 우려 속에서도 하이닉스 인수를 밀어붙였으며 그 승부수는 15년이 지난 지금 SK그룹의 가장 강력한 성장축으로 자리 잡았다. SK하이닉스의 성장세는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 회사는 올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98.1% 늘어난 52조 5763억원, 영업이익이 같은 기간 405.5% 늘어난 37조 6103억원을 기록했다. SK하이닉스 분기 매출이 50조원, 영업이익이 30조원을 넘는 것은 창사 이후 처음이다. 이로써 4분기 연속 역대 최대 실적 기록을 갈아치웠다.

SK하이닉스의 성장 뒤에는 최 회장의 선제적인 투자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 2012년 2월 최 회장은 미래 성장 산업 투자 중 하나로 SK하이닉스(구 하이닉스 반도체)인수를 단행했다. 반도체는 SK그룹이 처음 도전한 영역은 아니었다.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이 선경 반도체



지난 3월16일 미국 새너제이에서 열린 'GTC2026'에서 SK하이닉스 전시부스를 찾은 (왼쪽부터) 엔비디아 젠스 황 CEO와 SK그룹 최태원 회장. /SK하이닉스

2010년 전문가와 반도체 공부모임 3조4267억 투입해 하이닉스 인수

모바일 중심 재정비로 흑자 전환 2013년 세계 최초 HBM 개발성공

를 설립하며 진출을 추진했으나 제2차 오일쇼크 여파로 무산된 바 있다.

이같은 그룹의 '미완의 꿈'을 다시 꺼내 든 최 회장은 인수에 앞서 2010년 전문가들을 서울 모처로 초청해 반도체 공부 모임을 꾸렸고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하이닉스 인수의 전략적 가치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반도체 시장은 침체에 빠져 D램 가격이 연일 최저가를 경신하고 있었으며 하이닉스 역시 연간 2000억원대의 적자를 내고 있었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한 최 회장은 시장의 우려와 반대에도 3조 4267억원을 투입해 하이닉스 인수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최 회장은 인수 직후 곧바로 현장부터

챙겼다. 당시 외부인 없이 100명의 임원과 일대일 면담을 진행했으며 조직 내부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현장에서 해답을 찾은 그는 이후 기술 경쟁력 강화에 무게를 두고 엔지니어 출신 CEO들을 전면 배치했으며 연구개발과 생산 시설 확대를 위한 수조원대 투자도 과감

히 말했다.

SK를 만난 하이닉스는 종합반도체회사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전환점을 맞았다. 급속히 모바일 중심으로 재편되던 IT 산업 흐름에 발맞춰 모바일 메모리와 솔루션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했고 이를 통해 미래 성장을 위한 보다 선명한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했다.

2012년 3분기에 회사는 흑자 전환으로 비상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이듬해인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며 성장 궤도에 올라섰다.

내년 용인 클러스터 팹 오픈 예정
美 'AI 컴퍼니' 설립 추진 계획
혁신기업 투자·협업... 시너지 연계

SK하이닉스는 2013년 세계 최초로 20나노급 D램을 4단으로 쌓은 고대역폭 메모리(HBM) 개발에 성공하며 차세대 메모리 시장의 포문을 열었다.고 전력 소비는 40% 이상 낮췄다.

초기에는 새로운 적층 구조와 상용화 가능성을 둘러싸고 HBM이 실제 시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지를 놓고 의구심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2015년 리사 수 AMD CEO가 미국에서 열린 E3

게임쇼에서 "HBM 기술이 적용된 최초의 그래픽 카드"라며 신제품을 소개하자 기술적 의구심도 단숨에 불식됐다.

최 회장은 HBM을 비롯한 반도체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도 주저하지 않았다. SK그룹은 매년 조 단위의 연구 개발비를 투입하며 기술 경쟁력 확보에 힘을 실었고 2015년 M14 준공을 시작으로 신규 생산시설 확충에도 속도를 냈다.

투자는 현재진행형이다. 회사는 오는 2027년에는 용인 클러스터 팹을 오픈할 계획이다. 용인 클러스터는 총 4개 팹으로 구성되며 각 팹이 6개의 M15X 팹을 합친 것과 같은 규모로 조성된다.

SK하이닉스의 도전은 메모리를 넘어 AI 생태계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회사는 지난 1월 미국에 AI 솔루션 회사인 'AI 컴퍼니'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HBM 등으로 입증한 AI 메모리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단순 메모리 제조사를 넘어 AI 데이터센터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SK하이닉스는 AI컴퍼니를 통해 AI 산업의 중심지인 미국에서 AI혁신 기업들에 투자하고 이들 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하는 한편 여기서 확보한 역량을 SK그룹 차원의 시너지로 연계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국내 독자기술 '첨단대체시험법', 글로벌 규제 돌파구 모색

'K-NAMs' 공식 출범

오가노이드사이언스, 국내 22곳 산·학·연 전문가 집결 플랫폼

국내 독자 기술로 새로운 글로벌 첨단 대체시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새로운 플랫폼이 만들어진다.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것은 물론, 유전자·세포 치료제 등 차세대 첨단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국내 22개 이상의 산·학·연 전문가가 집결한 첨단 대체시험 플랫폼 'K-NAMs(Korea-New Approach Methodologies)'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FDA와 유럽의약품청(EMA)이 오가노이드 및 생체모사칩을 의약품 개발 도구로 인정하는 등 글로벌 신약 개발 패러다임이 동물실험에서 대체



(왼쪽 세번째부터) 이경진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최고기술책임자(CTO), 허정두 국가독성과학연구소장,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원.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시험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

미국 FDA는 2023년 FDA 현대화법(FDA Modernization Act 2.0) 시행으로 신약 개발 시 동물실험 의무를 공식 폐지했다. 유럽 EMA도 대체 시험법 우선 적용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추세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동물실험 대체 시험법 가이드라인을 순차 도입 중이지만 표준화된 검증 체계와 규제 적합

성 마련이 늦어져 산업 현장 적용에 한계를 겪어왔다.

이번에 출범하는 'K-NAMs 플랫폼'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획됐다. 단순한 기술 개발 단계를 넘어 ▲시험법의 표준화 ▲규제 적합성 검증 ▲글로벌 상용화를 위한 통합 기능 체계를 갖춘 것이 플랫폼의 핵심이다. 오가노이드, 생체모사칩, 인공지능(AI) 기반 분

석기술 등 첨단대체시험 전 분야를 포괄하는 기술적 완결성과 더불어, 기술개발부터 표준화, 상용화에 이르는 K-NAMs 생태계 조성을 표방한다.

K-NAMs 플랫폼은 '글로벌 NAMs 컨퍼런스'에서의 출범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는 최근 출범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가 발표한 '2030년 한국형 신약개발 혁신 기술평가 방안' 마련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플랫폼에는 기술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정부출연연구소와 학계에서 국가독성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가톨릭대학교, 건국대학교 등이 참여해 공신력 있는 비임상 평가와 원천 기술을 제공한다. 여기에 오가노이드 전문기관인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비임상 검증 전

문기관인 ㈜프리클리나와 국내 대표 AI 기업인 ㈜아론터, ㈜퀀텀인텔리전스 등이 합류해 데이터 분석 및 예측 기술을 고도화한다.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규제과 학연구센터,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애니멀프리니셔티브 등 비영리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K-NAMs의 국내외 규제기관 공조 및 대중인식 확산에 나선다. 또 글로벌 중개 전문 기업인 독일 람다바이오로직스 등과 협력해 국내 기술의 해외 시장 안착을 돕는다.

K-NAMs 플랫폼 구축을 주도한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유종만 대표는 "K-NAMs 플랫폼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내외 우수한 첨단대체시험법이 연구실에 머물지 않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가시적인 매출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체계적인 표준화 작업을 통해 국내 혁신 기술들이 글로벌 규제 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metro

김정관 "한미 전략투자 예비협의, 국익 부합 방향으로 진행"

(산업통상부 장관)

美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만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한미 양국의 전략적 투자 협력을 본궤도에 올리기 위한 전방위 외교에 나선다. 특히 지난 3월 통과된 '대미투자특별법'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며, 우리 기업의 북미 진출 지원과 국내 산업 활성화를 연결하는 '전략적 투자 협력'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현지시간 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는 북미 순방 중 6일 미국 워싱턴 D.C.를 찾아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상무 장관 등 미 정부 고위 인사들과 만나 '한미 전략적 투자 예비협의'를 진행한다.

이번 협의에서 양국은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진 전략 분야에서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협력 기틀을 마련한다. 김 장관은 "금번 방미 시 전략투자 프로젝트 관련 예비 협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 확대와 국내 산업에 대한 환류 등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방문에 앞서 대미 투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주력해 왔다. 김 장관은 이번 협의 결과가 실제 투자 집행과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metro

이란, 4주 만에 걸프국 공격 재개

>> 1면 "선박 피격..."서 계속

트럼프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게시한 글에서 "이란이 한국 화물선 등 (우리의) 해방작전과 관련이 없는 국가들을 공격했다"며 "이제 한국도 그곳(호르무즈 해협)에 가서 임무(작전)에 가담할 때가 온 것 같다"고 했다.

이는 지난 3월의 요구와 마찬가지로, 페르시아만 주변에 군함을 파견하라는

종용이다. 전장에 한국 등 우방국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의도를 다시 내비친 것.

이란은 약 4주간 중지했던 걸프국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다.

UAE 정부는 이날 이란의 미사일·드론 공습에 푸자이라 석유화합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이란이 쏜 여러 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성공했다고도 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경우, 관련 성명을 내지 않았으나 UAE 측 발표를 부인하지도 않았다. /세종=김연세기자 kys@

AI 시대를 여는 KEY

대한민국 산업화의 문을
에너지로 열었고

정보화의 문을
통신으로 열었으며

AI 전환의 문을
반도체로 열었습니다

국가 성장의 순간마다
묵묵히 함께 해온 SK가

또 한 번 대한민국의
Key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K



이 대통령 ‘숙의’에 멈춘 조작기소 특검법… 여야 공방 격화

민주, 특검법 ‘지선 후 처리’ 검토
국힘 “李 정권, 온갖 폭탄 다 미뤄”
야권, 결의문 등 공동 대응 움직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의 처리를 6·3 지방선거 이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 결집에 대한 당내 일각의 우려와 이재명 대통령의 ‘숙의’ 언급으로 속도 조절에 나선 셈이다. 그러나 보수 야권은 특검법을 고리로 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공동 행보를 본격화하는 등 공세를 계속하는 모양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의 ‘선거 후 처리’ 방안을 포함해 고민 중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기 동두천큰시장 방문 이후 “어제(4일) 청와대 브리핑도 있었기 때문에 당청이 조율해야 한다”면서 “국민과 당원, 국회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조작기소 국정조사’ 종료 직후 대장동·위례 사건, 대북송금 사건 등 수사·기소 조작 의혹을 다룰 특검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특검은 수사 대상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유지(공소 유지 여부 결정 포함) 업무를 수행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를 두고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이달 중 특검법을 처리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이재명 사법쿠데타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 긴급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방침이었다. 하지만 법안 내용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거세졌고, 당내에서도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혐지로 꼽히는 영남권에서는 중앙의 부정적 이슈가 지역에서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가운데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이 대통령이 특검법과 관련해 “여당이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지선 이후 처리를 요청했다는 해석이다. 다만 청와대는 특검법 필요성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에도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 대통령의 ‘셀프 면죄’를 위한 수단으로 규정하고, 지방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의 ‘숙의’ 입장에 대해 “국민들이 숙내를 다 알아서 지지율이 떨어지니 일단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려는 것”이라며 “결론은 끝까지 반드시 공소 취소는 하되, 시간만 좀 늦춰 보라는 이 대통령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셀프 공소 취소는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결국 심각한 범죄”라며 “지방선거가 지난다고 위헌이 합헌이 되지는 않는다. 독재는 어떤 말로 포장해도 그냥 독재”라고 했다.

장 대표는 “지금 이재명 정권은 온갖 폭탄을 지선 뒤로 다 미뤘다. 보유세 인상, 장특공(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설탕세, 담뱃세, 주류세에 이제 공소 취소까지 지방선거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 정도면 이재명의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의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폭탄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순간 본격적인 독재가 시작되고 민생은 파탄이 날 것”이라며 “지선 투표 제대로 하는 것이 이재명 폭탄 막는 길”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제 홍 정무수석이 전달한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특검 메시지는 ‘공소취소 특검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구체적 시기와 절차를 숙의하라’고 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국민을 눈속임하겠다는 조삼모사 사기극”이라고 적었다.

지선에 출마한 후보들도 가세했다. 오세훈서울시장 후보·유정복인천시장 후보·최민호 세종시장 후보·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김영환 충북도지사 후보·양정무 전북도지사 후보·이정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문성유 제주도지사 후보도 이날 ‘이재명 사법쿠데타 저지를 위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이재명 셀프 면죄·반헌법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법 발의를 전면 중단하고, 이미 발의된 법안은 즉시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은 ‘임기 중 나의 혐의에 대한 공소 취소는 결코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받겠다’는 점을 국민 앞에 분명히 천명하라.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에 해당 법안의 철회를 공식 요청하라”라고 촉구했다.

앞서 오세훈·유정복·양향자 후보는 전날 국회에서 조승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와 연석회의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 공동대응을 결의한 바 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국힘 부산 북갑에 박민식… 단일화는 일축

민주 하정우·무소속 한동훈 ‘3파전’
보수 단일화 여부, 최대 변수될 듯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확정했다. 이로써 부산 북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박민식 후보 3파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부산 북갑 보궐선거 경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민식 후보가 국민의힘 부산 북갑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4일 진행된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한 결과다. 박 후보는 이영풍 전 KBS 기자와 경선을 치렀다.

박민식 전 장관은 지난 18~19대 총선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에서 이곳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한 바 있다. 이후 20~21대 총선에서는 전제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에게 자리를 내주면서 2승 2패의 전적을 기록했다.

이에 이번 북갑 보궐선거에서는 박 후보와 민주당 소속 하정우 후보, 무소속 출마를 예고한 한동훈 전 대표와 3파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 안팎에서는 부산 북갑 탈환을 위해선 보수진영이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힘 후보와 한 전 대표가 모두 출마하면 표가 갈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을 여러 차례 일축한 바 있다. 박 후보는 이날도 후보 확정 직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 전 대표와의 단일화에 대해 “단일화 가능성은 ‘제로’다”라며 “주요 한 전 대표의 측근들이 ‘단일화, 무공천이다, 연대론이다’ 얘기를 하는데 선거에 나왔으면 당당히 주민들의 심판을 받는 것 아닌가. 더 이상 단일화 희망회로를 돌리지 말라”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당정, 오늘 ‘형사사법 체계 변화’ 토론회

당·정이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변화에 대비해 토론회를 연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 검찰개혁추진단장은 오는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형사사법 체계 개선 공동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는 보완 수사 요구 원칙 아래에 검·경 협력 증대, 범죄 대응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정에 정책위의장과 윤창렬 추진단장이 참석하며, 토론에는 좌장인 한상

희 교수, 발제자인 윤승익 교수, 토론자인 윤동호 교수, 김필성 변호사, 최호진 교수, 양홍석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 부여 여부 등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보완수사권을 다룰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6·3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

청와대에 핀 웃음꽃…李, 어린이들과 소통

어린이날 맞아 200명 초청

꿈·진로에 대한 대화 나누고
놀이·체험 프로그램도 운영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어린이날을 맞아 200여명의 어린이와 보호자를 청와대로 초청했다. 이번 행사는 ‘어서 와, 청와대는 처음이지?’라는 이름 하에 열렸으며,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로 복귀한 이후 처음 열린 어린이날 행사이기도 하다.

초청 대상은 인구소멸지역 거주 어린이, 보호시설 어린이, 한부모·다문화 가정 어린이, 장애·희귀질환 어린이, 청와대 인근 거주 어린이 등 다양한 환경의 어린이들이다. 특히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과거 방문했던 아동양육시설과 장애인복지관 이용 어린이, 그리고 지난해 희귀질환 환우·가족 간담회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했던 어린이들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정부기관 홍보 캐릭터들과 함께 어린이들을 맞이했고, 하이파이브를 나누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이날 참석한 어린이들에게는 청와대 본관의 세종실과 충무실이 개방됐다. 세종실은 국무회의가 열리고, 충무실은 간담회, 임명식 등 각종 행사가 진행되는 공간이다.

세종실에서 어린이들을 만난 이 대통령은 “이곳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하고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가 열리는 장소”라고 설명했다. 특히 어린이들이 앉은 자리를 가리키며

“각자 장관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 보라”고 말하는 등 참여를 유도하기도 했다.

어린이들은 “국무회의는 언제 하나요?”, “어린이날은 왜 5월 5일인가요?”, “통일은 언제 되나요?” 등 다양한 질문을 이어갔다. 또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서 손을 든 어린이들도 있었다. ‘청와대를 마음껏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 ‘도서관을 많이 짓고 싶어서’ 등 다양한 이유가 나왔다.

충무실에서 이 대통령 부부는 어린이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눴다. 대통령은 어떤 일을 하는지, ‘대통령 일은 편한지’ 등의 질문도 나왔다. 이어 녹지원에서 어린이들이 대통령 부부와 놀이를 이어가는 시간이 있었다. 녹지원은 이날 어린이날을 맞아 일일 놀이공원으로 꾸며져 회전그네, 회전비행기, 에어바운스 등 놀이기구와 컵케이크 만들기, 손 씻기 체험, 청와대 키링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이 대통령 부부는 어린이들과 함께 키캡 만들기과 페이스 페인팅 체험에 참여했다. 또 이 대통령은 어린이들의 요청에 따라 일일이 직접 사인을 해주며 “꿈을 이루세요”, “사랑합니다”, “훌륭한 아나운서가 될 것입니다” 등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김혜경 여사도 “어린이들이 오늘의 추억을 간직하고 돌아가 더 큰 꿈을 꾸며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예진 기자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KB국민행복 성장 프로젝트

“해외반응은 좋은데 수출경험이 부족해서..”

수출입 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및 전문 컨설팅 제공

“누가 우리회사에 맞게 도와줄 순 없나요?”

전국에서 만나는 기업 전문가 및 중소기업 전담 SME지점장



KB국민은행
기업성장 단계별
토탈 솔루션

“기술은 있는데 자금이 문제네요”

2030년까지 생산적금융 93조 원 지원 계획

“회계에 송금에.. 몸이 열개라도 모자라요”

복잡한 자금관리가 쉬워지는 ERP 연계 बैं킹 시스템

국민적 스케일의 금융 지원부터 수출 전략, 경영 관리까지-
KB국민은행이 기업에 필요한 모든 성장의 순간을 함께 합니다

기업의 모든 순간, 국민이 있다

KB국민행복 성장 프로젝트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품(서비스) 계약 체결전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KB국민은행 고객센터: 1588-9999, KB국민은행 홈페이지: www.kbstar.com ※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1600호(2026.04.08.), 유효기간 2026.04.08.~2027.03.22. 까지



iM금융, 핀테크 협업 속도... '블록체인 금융' 주도권 잡는다

계좌연동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실증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술검증 도입 수수료 90% 절감, 정산시간 단축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공략 전략

iM금융그룹이 블록체인 기반 기술의 서비스 실증(PoC)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입법이 예정된 가운데, 블록체인 기반 간편결제,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블록체인 금융'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iM금융은 국내외의 '빅테크' 기업 대신 국내 핀테크 기업과 협업하며 불확실한 규제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속도전'에 나선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iM금융그룹은 최근 블록체인 관련 서비스 실증(PoC) 절차에 한창이다. 지난달 20일 iM뱅크 계좌와 연동된 블록체인 기반 결제 서비스의 실증을 마쳤고, 28일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을 위한 기술 검증 및 규제 정합성 검토에도 돌입했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상의 다수 참여자가 별도의 중앙 서버 없이 데이터



대구 iM뱅크 제2본점. iM금융지주는 iM뱅크 제2본점에 위치해있다. /iM금융



황병우 iM금융그룹 회장이 작년 11월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워크 2025'에서 시연에 참여하고 있다. /안승진기자

를 분산해 저장하는 기술이다. 거래정보가 투명하게 기록되며, 복제나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특성을 갖는다.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은 복제나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의 특성을 활용해 기존 자산을 디지털화한 예시다.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는 낮은 비용을 앞세워 간편결제·환전·송금 등 영역에서 기존 서비스와 경쟁할 것으로 여겨진다. 금융권에서도 올 하반기로 예정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입법에 앞서 관련 논의가 활성화됐다. 특히 대형 금

유지주는 해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원화거래소 등 '빅테크' 기업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블록체인 금융'을 준비하고 있다.

iM금융은 빅테크와의 협업 대신 중소규모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을 택했다. 적극적인 혁신을 통해 불확실한 국내 규제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해외 시장의 선례에서는 후발주자의 시장 진입이 어렵고 대형 금융사가 경쟁에서 유리했던 만큼, '속도전'을 통해 시장 내에서 iM금융의 입

지를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iM금융이 우선적으로 노리는 시장은 블록체인 기반 간편결제 시장이다.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면 기존 카드사·PG사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최대 90%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통상 2~3영업일이 소요됐던 정산도 단축된다. iM금융은 낮은 수수료율과 빠른 정산이라는 장점을 앞세워 지역 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실제 iM금융은 지난달 20일 국내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 선불결제 시스템의 서비스 실증을 마쳤다. ▲은행 예금과 연동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충전 ▲가맹점 QR결제 연동 ▲결제 및 정산 등 상용 서비스에 필요한 절차를 검증했다. 특히 충전부터 결제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수 초 이내로 압축해, 블록체인 기반 결제 과정에서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불편함도 최소화했다.

iM금융그룹은 올 하반기로 예정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에 앞서 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 등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 준비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황병우 iM금융그룹 회장은 "이번 블록체인 기반 선불결제 시스템의 실증은 향후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 제도에 대비한 선제적 포석"이라면서 "앞으로도 유망 핀테크와의 협업을 확대해 분산원장(블록체인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 기반 금융서비스를 빠르게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강북권 아파트 매매가 상승, 전·월세 '실종'

지난주 서울 전세가격 0.20% 상승
성북 0.26%, 강북 0.26%, 노원 0.25%
"길음뉴타운 단지 전세 2~3건 수준"

서울 강북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매매가는 상승하고 전·월세 물건은 동시에 줄어들며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임대 물건 자체가 급감하면서 실수요자의 선택지가 좁아진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20% 상승했다. 특히 성북구(0.26%), 강북구(0.26%), 노원구(0.25%) 등 외곽 지역은 매매가와 더불어 높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부동산원은 매물 부족 속에서 역세권과 대단지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며 상승 거리가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5일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년 전 약 2만7000건에서 현재 1만5000건 수준으로 줄어 44% 감소했다. 성북구는 85% 이상, 노원구는 80% 넘게 물건이 급감했고 도봉·강북구 역시 60~70% 감소해 강북권 전반이 전세 물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 길음정위 신고가 속출·석달 새 2억↑
현장에서도 전세 물건 품귀 현상이 뚜렷하다. 성북구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매물 변동 현황을 정리한 자료 화면을 직접 보여주며 "길음뉴타운 일부 단지는 매매가 수십 건 있지만 전세는 2~3건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길음뉴타운의 경우 1단지는 매매 31건에 전세는 3건에 불과하고, 2단지도 전세 3건에 월세는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며 "원래 전·월세 물건이 꾸준히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매매만 남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기한인 5월9일 이



서울 성북구 길음동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재건축·신축 단지와 기존 주거지가 혼재된 강북권 주거 모습이다. /성채리 인턴기자

전에 집을 팔려는 다주택자의 움직임으로 매매 물건은 일정 수준 유지되는 반면 전세 물건은 품귀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 폭도 커졌다는 설명이다.

전세 가격이 빠르게 올라 최근 몇 달 새 2억원 가까이 뛴 사례도 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길음뉴타운 6단지 전용 84㎡ 전셋값은 얼마 전 6억 5000만원 수준에서 최근 8억2000만원까지 올랐다"며 "지난해 10·15 대책과 올해 2월 양도세 정책을 기점으로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성북구 장위동 '꿈의숲아이파크' 전용 84㎡는 최근 8억9000만원에 계약되며 전세 최고가를 경신했고, 길음동 '롯데캐슬클라시아' 전용 59㎡ 역시 전세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길음뉴타운4단지 e편한세상' 전용 84㎡ 전셋값은 연초 6억원 수준에서 최근 8억원까지 올라 석달 만에 2억원 상승했다.

◆ 월세·매매 전환도... '키 맞추기' 조심
인근의 또 다른 공인중개업소에서는 "세입자가 전세를 빼고 매수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어서 전세가 전혀 없던 대단지에서 최근 4~5건 정도 매물이나오고 있다"면서도 "가격이 높게 형성돼 거

래 속도는 느린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움직임도 나타난다"고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 지난달 월세 거래량도 1년 전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전세가 상승과 대출 부담이 겹치면서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임차 수요도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매수 전환 움직임에 따라 매매 가격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그는 "가격이 완만하게 오르면서 일부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나왔다"며 "실거래 신고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지만 길음래미안3차 아파트도 최근 20평대에서 최고가가 갱신됐다"고 귀띔했다.

한편 보유 부담을 줄이려는 1주택자의 이동이 맞물리면서 가격 '키 맞추기' 흐름도 감지된다. 부동산공인중개사는 "강남·방배·서초 등에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은 강북으로 이동하려는 수요도 있다"고 말했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

보험료 50% 낮춘 '5세대 실손보험' 출시

금융위, 16개 보험사서 판매 개시
필수 의료 중심 중증질환보장 강화
비급여치료 등은 자기부담물 확대

기존 실손보험과 비교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면서도 중증질환 보장은 강화한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된다. 기존 실손보험 대비 보험료 부담을 최대 50%까지 낮추면서도, 중증질환의 보장성은 강화한다. 단, 과잉의료를 유발하고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됐던 비중증질환의 비급여치료와 비필수적 치료에는 보다 높은 자기부담물을 책정한다. 필수 의료 중심의 합리적인 보험 보장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5세대 실손보험'이 오는 6일부터 16개 보험회사(생보사 7곳·손보사 9곳)에서 판매된다고 5일 밝혔다. 소비자는 보험사 방문이나 보험설계사, 보험다모아, 콜센터 등을 통해 5세대 실손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5세대 실손보험 가입 시 4세대 실손보험과 비교해서는 약 30%, 1~2세대 실손보험과 비교해서

는 최대 50%까지 보험료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5세대 실손보험은 급여 대상 항목 중 입원·비입원 치료를 구분해 보장한다. 입원치료의 경우 중증질환·수술 등 불가피한 의학적 필요에 의한 경우가 많고, 의료비 부담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해 기존과 같이 자기부담률을 20%로 적용한다. 통원치료는 실손보험 자기부담률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연동해 의료기관·진료항목에 따라 의료수요가 조절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신규 항목으로서 임신·출산 및 발달장애에 관한 급여 의료비도 새롭게 보장 대상에 포함한다. 저출생 시대에 출산·육아와 관련된 필수 의료비 보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비급여 항목에서는 특약을 통해 중증질환과 비중증질환을 구분해 보장한다. 중증질환 특약의 경우 보험료 지급 시에도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하며, 연간 최대 500만원의 입원의료비 연간 자기부담 상한을 설정해 기존 보험보다 보장성을 강화한다. /안승진 기자

KB국민은행, 직원자녀 초청 어린이날 행사

KB국민은행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KB국민은행 및 주요 계열사 직장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직장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2세~5세 아동을 초청해 진행됐으며,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는 동시에 임직원과 가족 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가족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뮤지컬 공연, 풍선아트, 빼어로 공연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돼 아동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직장어린이집 재원 아동 전원에게는 'KB스타프렌즈' 캐릭터 비치타월과 쿠키세트 등으로 구성된 어린이날 선물도 제공됐다.

이한주 KB국민은행장은 직접 행사를 찾아가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증정하고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안성미 기자 smahn1@

고유가에 車 시장 지각변동... HEV 등 친환경모델 급부상

중동사태 장기화... 유가 부담 커져 대형 SUV 등 효율성 중심 소비흐름 현대차·기아 국내외 시장 판매 호조

최근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부담 확대로 고효율 하이브리드차(HEV)의 판매 성장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선을 넘어서면서 덩치 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부문에서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소비 흐름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완성차 판매 1위를 차지한 기아는 쏘렌토(1만 2078대)와 카니발(4995대), 스포티지(4972대), 셀토스(3580대) 등 레저용 SUV 차량에서 인기를 끌었다. 특히 1, 2위를 기록한 쏘렌토와 카니발의 HEV 판매가 눈길을 끈다. 쏘렌토는 지난달 내연기관 1837대, 하이브리드 1만 241대를 기록했으며 카니발은 내연기관 829대, 하이브리드 4166대를 기록했다. 또 3000만~4000만원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전동화 모델인 EV3와 EV



기아 쏘렌토



/기아 푸조 올 뉴 500E 스마트 하이브리드, /스텔란티스코리아

5은 각각 3898대, 3308대가 판매되며 고유가 영향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차도 몸집이 큰 SUV 부문에서는 HEV 인기가 압도적이다. 싼타페 HEV는 3228대(내연기관 674대), 팔리세이드 HEV는 2456대(내연기관 966대)를 기록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북미시장에서도 친환경차의 인기에 힘입어 총 4만 8425대를 판매하며 선전했다. 특히 HEV의 월간 판매량은 4만 1239대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현대차는 2만 1713대로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47.7%, 기아는 1만 9526대로 70% 급증했다.

수입차 업체들도 HEV 라인업을 강화하며 국내 시장에서 반등을 노리고 있다. 프랑스 브랜드 푸조는 3세대 완전변경 모델, 올 뉴 500E와 올 뉴 300E 스마트 HEV 모델로 판매량 확대에 나서고 있다.

푸조가 선보인 스마트 HEV 시스템은 e-DCS6 6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에 통합된 15.6kW 출력의 전기모터를 적용했다. 공인 연비(올 뉴 300E: 14.6km/L, 올 뉴 500E: 13.3km/L)를 넘어서는

실연비를 기록하며 실용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급부상하고 있다.

토요타코리아도 국내 소비자들의 HEV 선호 현장에 맞춰 판매 비중의 약 98%를 HEV 모델로 채우며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알파드 HEV, 프리우스 HEV 사륜구동(AWD), 캠리 HEV 등 2026년형 모델을 선보이며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LGD, 'SID 2026' 참가 3세대 탠덤 OLED 공개

LGD디스플레이가 차세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을 공개하며 디스플레이 기술의 미래를 제시해 나가고 있다.

LGD디스플레이는 오는 7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SID(국제정보디스플레이 학회) 디스플레이 워크 2026'에 전시장을 마련하고, 'AI 시대를 위한 OLED의 진화'를 주제로 AI 시대에 최적화된 OLED 디스플레이 설루션을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LGD디스플레이는 이번 전시에서 기존 대비 소비 전력은 18%, 수명은 두 배 이상 향상된 '3세대 탠덤 OLED' 기술을 최초 공개한다. 3세대 탠덤 OLED는 차량용으로 설계돼, 1200니트의 고휘도로 상온 기준 1만 5000시간 이상 구동해도 화면 저하가 없는 강한 내구성이 특징이다.

차량용 3세대 탠덤 OLED는 연내 양산에 돌입하고, 이후 IT용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으로 확대 전개할 방침이다. '피지컬 AI' 분야에서도 OLED 기술력을 뽐낸다.

LGD디스플레이는 이번 전시에 휴머노이드 로봇용 P(플라스틱)-OLED 제품을 대중 대상 최초로 선보인다. P-OLED는 높은 디자인 자유도를 바탕으로 휴머노이드 업체마다 상이한 로봇 디자인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기술이다.

이외에도 LG디스플레이가 독보적 기술을 보유한 OLED 혁신 제품들도 전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차현정 기자

한화오션, 해상풍력 사업 속도... 설치선 투자·EPC 본격화

연평도 인근 해상풍력 사업 추진 설치선 운영 자회사 1272억 투자 현대건설과 신안우이 EPC 수행

한화오션이 해상풍력 밸류체인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풍력발전기 설치선(WTIV) 운영 자회사 출자로 설치·운영 기반을 다지고, 연평도 해상풍력 개발과 신안우이 설계·조달·시공(EPC)을 병행하며 사업 축을 전방위로 넓히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서해5도 연평도와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480MW급 해상풍력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연평도 남측 약 18km 해상 일대에 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15MW급 발전기 32기 또는 10MW급 발전기 48기가 설치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약 4조 1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회사는 내년 발전사업허가 취득과 오는



한화오션이 건조한 대형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선(WTIV) 시운전 모습. /한화오션

2029년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31년 3분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설치선 운영 역량 확보도 병행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지난달 27일 자회사 오션이앤아이 유상증자에 참여해 약 127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오션이앤아이는 한화오션이 지분 100%를 보유한 WTIV 운영 회사로, 이번 투자는 해

상풍력 설치역량을 내재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화오션은 현재 15MW급 대형 터빈 설치가 가능한 WTIV를 건조 중이며, 완공 이후 오션이앤아이가 해당 선박 운영을 맡을 예정이다.

시공 부문은 이미 본격화 단계에 들어섰다. 한화오션은 전남 신안군 우이도 인근 해역에서 추진 중인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에 참여해 현대건설과 함께 EPC를 수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390MW 규모로, 총사업비는 2조 6400억원이며 이 중 한화오션 몫은 1조 9716억원이다. 프로젝트는 지난달 9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약정 체결을 계기로 공사가 본격화됐으며 육상 공사는 연초부터, 해상 공사는 지난달 중순부터 하부 구조물 설치에 진행되고 있다.

추가 사업 기회 확보 여부도 주목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2026년 상반기

풍력 고정가격계약' 입찰을 진행 중이다. 해상풍력 사업자 선정 절차가 이어지는 만큼, 향후 신규 프로젝트 확보 여부가 한화오션의 사업 확대 폭을 가늠 변수로 꼽힌다.

정책 환경 역시 사업 확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연간 4GW 규모의 해상풍력을 보급하고, 2035년까지 누적 25GW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항만과 설치선박 등 인프라 확충과 함께 금융 지원, 인허가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관련 법 시행 이후 계획입지 선정이 본격화되면 향후 사업 기회 확대가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오션은 풍력 사업권 인수를 통해 개발 역량을 확보하고 사업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며 "해상풍력 밸류체인을 전방위로 구축하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

석화업계, 1분기 실적 선방... 재고효과·정책지원 '불안한 회복'

LG화학·한화솔루션·SKC 석유화학 부문 흑자전환 성공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중동 전쟁 이후 원료 수급과 가격 변동성이 커진 환경에서 수익성 방어에 나서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재고 효과와 정책 지원이 실적을 떠받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글로벌 수요 부진과 공급과잉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다. 최근 흐름을 본격적인 업황 반등보다는 변동성 국면에서 나타난 제한적 개선으로 보아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석유화학 업체들의 1분기 실적이 개선된 데 이어 2분기에다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LG화학 석유화학 부문은 올해 1분기 매출 4조 4723억원, 영업이익 1648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직전 분기 영업손실 2390억원에서 흑자 전환했다. 한화솔루션은 케미칼 부문에서 영업이익 341억원을 기록하며 2년 반 만에 흑자를 냈다. SKC의 화학 사업은 올해 1분기 매출 2708억원, 영업이익 96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롯데케미칼은 전 분기보다 적자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1분기 실적 개선은 수요 회복보다는 원가 구조상 일시적으로 유리한 구간이 형성된 영향이 컸다. 전쟁 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매입한 나프타 재고가 1

분기 생산에 투입된 가운데 중동 전쟁 이후 화학제품 가격이 오르면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졌다.

2분기에다 일정 수준의 실적 방어 가능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산업통상부는 4~6월 도입되는 나프타 계약 물량에 대해 전쟁 이전 가격과의 차액 중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규모는 총 6744억원이며 대상은 나프타뿐 아니라 LPG, 콘덴세이트, 에틸렌, 프로필렌 등 대체 원료와 기초유분까지 포함된다. 이와 함께 비중중산 원유 도입 확대를 위해 추가로 발생하는 운임 차액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최근 실적 개선을 구조적 회복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적지 않

다. 글로벌 경기 회복이 뚜렷하지 않은 데다 중국발 공급과잉 부담도 이어지고 있어서다.

향후 유가와 나프타 가격이 하락할 경우 수익성이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낮은 원가의 재고가 투입되던 구간이 끝나고 비싸게 확보한 원료가 제품 원가에 반영되면 역래깅(원자재 가격이 높을 때 매입한 재고를 가격 하락 시점에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할 때 생기는 이익 감소 현상) 부담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1분기 실적은 수요가 좋아졌다기보다 재고 손익과 래깅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결과로 봐야 한다"며 "2분기에는 정부 지원이 일부 버팀목이 될 수 있지만, 업황 회복 여부는 결국 글로벌 수요 개선이 뒷받침돼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27년 현장 노하우 담았다... 습기·부식 잡은 제습컨테이너

혁신기업 돋보기

신조로지텍 권 순 옥 대표

광양만에 年17만개 생산공장 추진
올가을 착공해 2028년 완공 전망
100억 투입 신제품 5월 말 실증
고강판·분체도료·스틸바닥 적용
500kg 가볍고 수명 25년 기대
權 “남들이 못하는 물류 추구”

부산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물류 혁신 강소기업 신조로지텍이 중국산 컨테이너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제습컨테이너 개발을 끝내고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올해 가을 전남 광양만에 연간 17만개 생산 능력을 갖춘 공장을 본격 착공, 완공 예정인 2028년 상반기께면 'Made in Korea'의 제습컨테이너를 국내외 시장에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권순옥 신조로지텍 대표는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컨테이너는 완벽하지 않다. 특히 바닷물 때문에 부식에 약할 수밖에 없다. 기존엔 부식을 막기 위해 포장으로 해결해야 했다. 포장으로 생기는



권순옥 신조로지텍 대표가 부산에 있는 본사에서 회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메인비즈협회

폐기물이 많고 친환경적이지 못한 단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제습컨테이너를 개발했다. 5월 말 실증테스트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권 대표는 제습컨테이너 개발에만 100억원 가량의 투자비를 쏟아부었다.

신조로지텍이 개발한 제습컨테이너는 고강판을 써 두께는 기존 제품보다 얇지만 중량이 500kg 정도 가볍다. 페인트는 부식에 강한 분체도료를 썼다. 이로

인해 성능이 30% 가량 향상됐다. 바닥도 나무바닥이 아닌 스틸로 했다.

권 대표는 “기존 컨테이너의 수명은 15년 정도다. 1개 가격이 3000달러다. 우리가 개발한 제습컨테이너는 대당 4000달러 수준이다. 그런데 25년을 쓸 수 있다. 더욱 경제적인데다 친환경적인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권 대표는 제습컨테이너 공장 신축을 위해 광양에 9만 2000평의 땅도 이미 확보해놨다.

물류회사가 컨테이너를 직접 만들기 위해 제조업에도 본격 뛰어들었다.

신조로지텍은 권 대표가 1998년 당시 신조해운으로 설립, 출발한 종합 물류기업이다. 회사는 지난해 44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우리는 남들이 못하는 물류를 추구한다. 큰 물건을 나르는 것을 가장 잘 하는 회사라고 자부한다.” 그가 이야기하는 신조로지텍의 물류 신조다.

그러면서 권 대표는 “물류전문가는 토털 엔지니어다. 포워딩을 하는 포워더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고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포워딩(forwarding)이란 국제 물류에서 물건을 보내는 화주를 위해 보관, 배송까지 모든 과정을 처리하는 것을 말

한다.

‘원스톱 통합 물류 솔루션’을 통해 해상운송, 복합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조로지텍은 그중에서도 프로젝트 플랜트, 초중량 화물 등 특수 화물 운송에 특화돼 있다.

“공장을 해체하는 도면을 지구상에서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물류회사일 것이다. 비용을 줄이기위해선 화물을 옮기는 배의 구조도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포워더 중에선 배에 정통한 전문가가 많지 않는데 우리가 바로 그 전문가다. 여기에 포장, 하역, 내륙 운송 등 다양한 이해와 지식은 필수다.”

신조로지텍이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있는 국제해운합실협회(ITER) 프로젝트에서 국내 굴지의 회사를 제치고 공식 물류업체로 선정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신조로지텍은 HD현대중공업이 제작한 600톤 무게의 초정밀 핵융합 장비를 한국 울산 미포항에서 프랑스 남부 카다루슈로 성공적으로 운송하며 세계적 수준의 특수 화물 운반 역량을 입증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선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최적의 적재 능력을 바탕으로 화주들 비용 절감과 회사 수익 추가 창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곳곳에서 잡고 있

다. 중국에서 브라질로 운송하는데 8만 달러가 드는 라이프보트를 4만 달러에 나르면서 화주에게는 7만 달러를 청구해 결국 양쪽이 윈윈하는 성과를 거뒀다.

권 대표는 “한 회사의 2.65m 규모 대형 드릴을 용접 부분을 분리해 2.5m로 만들어 운송했다니 1만5000달러였던 비용을 4000달러로 줄여 화주에게 큰 기여를 했다”면서 “우리는 해상, 운송, 통관, 관세환급, 하역, 포장, 보험, 무역, 외환 실무 등에 모두 특화돼 있다고 자부한다”면서 활짝 웃었다.

‘경영혁신(메인비즈)’ 인증기업으로 신조로지텍은 컨테이너 적재 최적화 프로그램인 ‘1BOX.Click’도 개발 막바지다. 이는 27년간 현장에서 축적한 컨테이너 적입(CLP) 노하우를 인공지능(AI) 알고리즘으로 체계화한 것으로, 현장 제약 조건과 항로별 운임 비용을 동시에 반영해 최적의 적재 배치와 컨테이너 조합을 자동으로 산출한다. 아울러 실시간 화물 위치 공유 시스템, 클라우드·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문서 관리(e-BL) 등 디지털 물류 고도화에 앞장서는 등 끊임없이 혁신에 도전하고 있다. /부산=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이노비즈협회, K-방산 스타트업 15곳 육성 시동

‘K-방산 스타트업’ 1단계 사업 수도권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 12월까지 유망 방산기업 발굴

이노비즈협회가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추진하는 ‘2026년 K-방산 스타트업 1단계 육성사업’의 수도권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5월 이노비즈협회에 따르면 이 사업은 방산 분야 경험이 없는 초기 창업기업과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방위산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과제 기획 ▲방산 교육 ▲선행 연구개발(R&D) ▲멘토링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이노비즈협회는 올해 12월까지 총 15억원 규모의 사업을 통해 수도권 내 유망 방산 스타트업 15개사를 발굴하고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ICT 및 제조 분야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민간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술개발 아이템 기획부터 시제품 제작·검증, 사업화까지 전 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국방산업 진입을 가속화하고 방산 기업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이끈다는 전략이다.

나아가 협회가 보유한 이노비즈기업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기술력이 검증된 중소기업 중심의 자생적인 방산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참여 기업은 향후 2단계(2027년, 기업당 최대 5억원 지원)와 3단계(2028년, 기업당 최대 21억원 지원)로 이어지는 중장기 연구개발(R&D)에도 참여할 수 있어, 글로벌 진출까지 연계되는 ‘성장 사다리’ 지원을 받게 된다.

이노비즈협회 관계자는 “수도권은 우수한 기술력과 인력, 투자 인프라가 집중된 핵심 지역”이라며 “민간 중심의 실행력 있는 밀착 지원을 통해 방산 스타트업의 신속한 사업화와 스케일업(scale-up)을 적극적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노비즈협회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방산 진출을 돕기 위한 생태계

조성에도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방위사업청 및 한국방산혁신기업협회와 함께 ‘K-방산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방산 분야 교육·컨설팅, 수출 지원, 기술사업화 등 실무형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전체 방산혁신 기업의 66%를 차지하는 이노비즈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K-방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꾸준히 견인해 나갈 계획이다.

이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 공고는 5월 초 이노비즈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코웨이

ESG 평가서 상위권 입증 ‘S&P 지속가능성 연감’ 멤버 선정

코웨이가 13년 연속으로 ‘다우존스 베스트 인 클래스(DJ BIC)’ 아시아퍼시픽 지수에 편입됐고 ‘2026 S&P 지속가능성 연감(Sustainability Yearbook)’ 멤버로도 선정됐다. 5월 코웨이에 따르면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S&P 글로벌은 매년 실시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CSA)’를 통해 전 세계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올해는 전 세계 59개 산업군, 9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됐으며 이중 우수한 ESG 성과를 보인 848개 기업이 연감 멤버로 등재됐다. /김승호 기자

LX하우시스, ‘LX Z:IN 플래그십’ 오픈

강남 논현동에 510평 전시장 조성
브랜드 철학·디자인·기술력 체현

LX하우시스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회사의 대표 전시장인 ‘LX Z:IN 플래그십’을 오픈했다.

5월 LX하우시스에 따르면 ‘LX Z:IN 플래그십’은 연면적 1690㎡(약 510평) 규모의 총 3개층으로 구성됐으며 ‘자재를 넘어 공간과 삶을 직조하는 LX Z:IN’이라는 컨셉을 바탕으로 LX Z:IN 브랜드만의 철학, 디자인, 기술력과 제품을 종합적으로 경험하고 바로 제품 구매까지 할 수 있는 전시 매장으로 꾸며졌다.

특히, LX Z:IN 브랜드에 대한 호기심을 이끌어내는 1층 공간을 시작으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공간 솔루션을 제안받는 3층 공간, 솔루션을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자재를 탐색하고 구매하는 2층 공간으로 이어지는 여정의 동선으로 구성했다.

1층에는 과거와 현재의 인테리어 자재를 한 공간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인사이트 스튜디오’ 공간이 운영된다. ‘하이 샷시’ 창호와 ‘깔끄미’ 바닥재 등으로 구성된 당시 국민 제품으로 구성된 과거공간, ‘뉴프레임’ 창호와 ‘에디톤’ 바닥재, ‘디아밍’ 벽지로 구성된 현재공간을 비교 체험해보면서 오랜 시간 국내 인테리어 시장을 선도해 온 LX하우시스만의 기술력과 디자인을 살펴볼 수 있다.

/김승호 기자

교원투어, 푸꾸옥 가족여행 수요 공략

5성급·체험형 패키지 등 선봬

베트남 푸꾸옥의 인기로 교원투어가 관련 상품을 내놨다. 푸꾸옥은 5성급 리조트와 풀빌라 등 신규 숙박 인프라 확충과 함께 체험형 콘텐츠가 확대되면서 가족 단위 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교원투어 여행자가 최근 3년간 5월 가정의 달 예약 데이터를 분석해 5월 내놓은 결과 베트남 전체 예약에서 푸꾸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14.7% ▲2025년 25.1% ▲2026년 29.8%로 매년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항 노선 확대에 따른 접근성 개선과 더불어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여행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교원투어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푸꾸옥 풀빌라 패키지 기획전 이미지.

여행 수요를 겨냥한 ‘푸꾸옥 풀빌라 노 옵션 패키지’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 상품은 신규 취향한 썬 푸꾸옥항공의 인천~푸꾸옥 노선을 이용하며 세라톤 푸꾸옥 롱비치 리조트와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소나씨 푸꾸옥 등 5성급 리조트에 숙박한다. /김승호 기자

토요타코리아

올 뉴 RAV4 내달 출시 PHEV GR 스포츠 트림 추가

토요타코리아가 다음달 16일 ‘올 뉴 RAV4’를 공식 출시를 앞두고 전국 전 시장에서 사전 계약을 시작한다. 5월 토요타코리아에 따르면 올 뉴 RAV4는 4개 트림으로 라인업을 확대했다. 주행 성능을 강조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GR 스포츠’를 새롭게 추가해 하이브리드 2개 트림으로 구성된다. 올 뉴 RAV4 PHEV는 대용량 리튬이온배터리와 고출력 충전 대응 기능을 갖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해 E-V 모드 주행거리와 출력 성능을 향상시켰다.

/양성문 기자 ysw@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가정의 달, 행복을 나누는 마음으로 모두의 내일에 하나가 힘이 되겠습니다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생명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저신신탁 | 하나저신금융 | 하나대체투자저신금융 | 하나에프엔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투자 | 핀크

대형 게임사 '역대급 실적'... 자금 마른 중소형사는 무너진다

중소 개발사, 구조조정·서비스 종료
숏폼에 밀리고 中 공세에 입지 축소
2월 게임 분야 신규투자 87% 급감
세액공제 등 진흥정책 부족 지적

중소 게임사 붕괴와 투자 급감이 겹치며 국내 게임 산업이 대형사 중심 구조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중소 게임사들의 경영 위기가 확산되면서 국내 게임 산업이 구조적 전환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 넥슨과 크래프톤 등 주요 대형사는 역대급 실적을 이어가지만, 중소 개발사는 자금난과 이용자 감소, 투자 위축이 겹치며 버티기 어려운 환경에 놓였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중소 개발사는 신작 출시 이후 자금 부족으로 서비스 축소나 종료에 들어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인력 이탈과 구조조정도 확산 중이다.

업계에서는 "개발 인력 유지 자체가 어



국내 게임산업이 대형사 위주로 재편되면서 중소 게임업체들이 위기를 겪고 있다. /시가 만든 이미지

려운 수준까지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일부 상장 게임사 역시 실적 부진이 장기화되며 재무 건전성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흐름은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니라 시장 구조 변화 영향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숏폼 영상과 OTT 중심으로 콘텐츠 소비가 재편되면서 게임 이용 시간이 줄어드는 데다, 중국 게임사의 공세가 강화되며 중소 게임사의 입지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게임이 더 이상 동일 산업 내 경쟁이 아니라 전반적인 여가 콘텐츠와 경쟁하는 국면으로 전환된 셈이다.

투자 환경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올해 2월 게임 분야 신규 투자 금액은 4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87% 감소했다. 투자 자금이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등 다른 성장 산업으로 이동하면서 게임 분야는 후순위로 밀리는 분위기가 뚜렷하다.

문제는 게임 산업 특성상 선투자가 필수라는 점이다. 개발 기간이 길고 흥행 불확실성이 높은 구조에서 투자 감소는 곧 프로젝트 중단과 기업 축소로 이어진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경우 국내 게임 산업이 소수 대형사 중심으로 재편되고 생태계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책 공백도 도마에 오른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 등 이용자 보호 정책은 강화된 반면, 제작 지원과 세제 혜택 등 산업 진흥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영상·애니메이션 산업처럼 게임 개발 비용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지만 제도화는 지

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시기와 비교하면 체감 이용자 규모가 크게 줄었다"며 "게임이 영상, SNS, 오프라인 여가와 직접 경쟁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자본력과 마케팅에서 밀리는 중소 게임사는 생존 자체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벤처캐피탈 업계 관계자는 "게임은 출시 전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고위험 산업인데 최근에는 투자 대비 수익 기대치가 낮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성과 가능성이 명확한 팀이 아니면 투자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업계 안팎에서는 자금이 구조 전환 대응의 '골든타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 규제를 넘어 제작 지원, 세제 혜택,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 정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중소 게임사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가 커진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metro

카카오모빌리티, '피지컬 AI 기업'으로 도약

'자율주행' 주제로 사내 올핸즈 미팅
기존 경쟁력·자율주행기술 고도화
축적 데이터로 빅테크 차별화 확보

카카오모빌리티가 '피지컬 AI 기업' 도약을 목표로 전사 역량 결집에 나선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30일 판교 사옥에서 '자율주행'을 주제로 사내 올핸즈 미팅을 열고, 조직 내 기술 전략과 방향성을 공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피지컬 AI 부문 신설 이후 처음으로 전사 구성원과 진행한 공식 소통 자리다.

회사를 이끄는 핵심 전략은 기존 서비스 경쟁력과 자율주행 기술의 '동반 고



도약'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실제 운영 경험에서 축적한 데이터와 고객안전중심서비스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빅테크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카카오 T 플랫폼 인프라에 자체 자율주행 기술을 결합해 대규모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E2E 자율주행 모델을 고도화한다.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까지 전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 기술 체계를 완성한다는 전략이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고도화된 E2E (엔드 투 엔드) 자율주행 모델 ▲자율주

행 차량 검증 파이프라인 ▲지능형 통합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을 제시했다.

동시에 외부 자율주행 기업 및 학계와의 협력을 확대해 오픈 생태계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김진규 카카오모빌리티 피지컬 AI 부문장(사진)은 "강남 도심에서 실제 여객 운송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라며 "자율주행 핵심 요소인 플래너를 데이터 기반으로 고도화해 서비스에 순차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 T 데이터와 기술에 피지컬 AI를 결합해 새로운 모빌리티 혁신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지난 2일 데브시스터즈 쿠키앤모어 팝업 현장 대기 등록이 500팀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데브시스터즈

쿠키런 팝업 '쿠키앤모어' 대기 500팀 몰려

데브시스터즈, 쿠키런 IP 확장력 입증

데브시스터즈 '쿠키앤모어' 팝업이 첫 주말부터 대기 500팀을 돌파하며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데브시스터즈는 최근 오픈한 쿠키런 디저트 팝업스토어 '쿠키앤모어'가 첫 주말부터 높은 방문객을 끌어모으며 흥행 분위기를 형성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팝업은 쿠키런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기획한 오프라인 체험형 공간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 지하 1층에 마련했으며, 쿠키런 세계관을 '레시 피 라이브러리' 콘셉트로 재해석해 캐릭

터에서 영감을 받은 디저트를 선보인다.

개장 첫날인 지난 2일 오전부터 현장 대기줄이 형성됐고, 오후 12시 30분 기준 대기 등록이 500팀을 넘어섰다. 첫 주말 동안 르뱅 쿠키 15종과 소울잼 쿠키 세트, 머랭샌드 쿠키 세트 등 주요 상품이 연이어 조기 소진됐다. 회사는 매일 신규 생산 물량을 공급해 재방문 구매가 가능하도록 운영한다.

굿즈 판매도 호조를 보인다. 무작위 꾸끼즈 봉제 키링과 아크릴 에폭시 키링 등 신규 캐릭터 상품이 인기를 끌었고, 기존 비스트 쿠키 피규어 역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최빛나 기자

카카오게임즈 대학축제 시즌 겨냥 '배틀그라운드' 행사

카카오게임즈가 대학 축제 시즌을 겨냥해 '배틀그라운드' 오프라인 이벤트로 Z세대 접점 확대에 나선다.

카카오게임즈는 5일 대학 축제 시즌을 맞아 오프라인 이벤트 '캠퍼스 치킨 드랍 VOL.2'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크래프톤 산하 펍피 스튜디오가 개발한 'PUBG: 배틀그라운드' 이용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Z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했다. 지난해 행사 흥행을 바탕으로 규모를 키웠으며 '준비 끝에 닭이 온답'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행사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시립대학교, 28일부터 29일까지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서 각각 진행한다. 현장에는 배틀그라운드와 카카오프렌즈 IP를 활용한 체험형 부스를 운영하고, 방문객 참여형 미션 이벤트와 경품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최빛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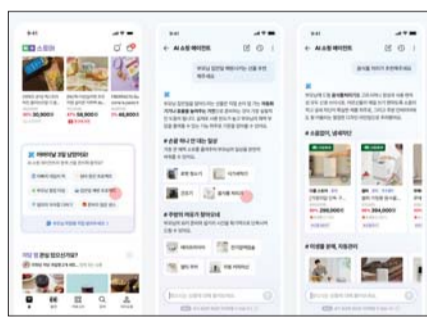
네이버, '선물 에이전트'로 AI쇼핑 강화

일상적 대화 통해 선물 추천 받아

네이버는 5일 가정의 달을 맞아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앱에 '선물 에이전트'를 탑재하고 AI 쇼핑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능은 대화형 AI 기반 'AI 쇼핑 에이전트'의 확장 형태로, 사용자가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상황과 취향에 맞는 선물을 추천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검색어 입력 없이도 홈 화면에서 '어버 이날 선물 준비' 등 맥락 기반 제안을 먼저 제공하고, 테마형 큐레이션으로 자연스러운 상품 탐색을 유도한다.

사용자가 특정 상황을 입력하면 AI가 쇼핑 데이터와 추천 기술을 결합해 맞춤형 테마를 생성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날, 취미, 가족 선물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볼록, 보드게임, 홈카페 용품 등 세분화된 추천을 제시한다. 임신 축하나 집들이 등 특수 상황에서도 감성 기반 테마와 함께 적합한 상품을 제안한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앱 홈 화면에서 선물 에이전트의 선물 아이디어 제안 흐름. /네이버

특히 단순 상품 나열을 넘어 리뷰 데이터와 쇼핑 정보를 분석해 선물용 적합성까지 함께 안내한다. 선물 만족도 리뷰, 공식 스토어 여부, 포장 및 각인 서비스 등 구매 판단에 필요한 요소를 요약 제공한다.

네이버는 이번 기능을 통해 고관여 쇼핑 영역인 '선물' 카테고리에서 AI 추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지난 2월 베타 출시 이후 사용자 수와 이용 건수가 증가하고, 추천 상품 클릭 전환율도 상승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최빛나 기자

통신3사, 미래 잠재고객 키즈폰 경쟁 치열

포켓몬·산리오·무너 등 IP 결합

국내 이동통신 3사의 키즈폰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키즈폰은 장기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래 잠재 고객을 선점하고 가족 결합을 통한 가입자 유지가 용이해사다.

특히 위치 확인과 유해물 차단 등 보호 기능이 탑재돼 학부모 수요를 끌어들이고 있다.

키즈폰은 인기 캐릭터 IP와 안전 기능을 결합해 사용 가치를 높인 게 특징이다.

SK텔레콤은 포켓몬 캐릭터를 적용한 'ZEM폰 포켓포스'에 인공지능(AI) 기반 안심 케어 기능을 더해 자녀 위치를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다.

KT는 산리오 캐릭터 폼폼푸린에 전용 파우치를 더해 상품성을 높였다. 위치 조회와 유해물 차단 기능을 담은 'KT 안심박스' 서비스를 무료 제공해 안전 기능이 강화했다.

LG유플러스는 자체 캐릭터 '무너'를 적용한 키즈폰에 교육 기능을 결합했다. 국어·영어·수학·과학 학습이 가능한 '유독픽 AI 교육팩'을 탑재해 차별화했다.

/조민선 기자 msjo@

“우리 아이 첫 주식은 ‘삼성전자’”... 미성년 투자 열풍 확산

삼성전자 거래건수 56.3%로 1위
0~9세 계좌 개설 증가율 119.2%
계좌당 평균 잔고 약 1000만원



삼성전자 사옥

/뉴스

부모들이 미성년 자녀에게 선물한 국내 주식은 삼성전자로 나타났다.

5일 KB증권이 자사 고객이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를 통해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에게 선물한 종목을 분석한 결과 거래건수 기준 삼성전자가 1위를 차지했다.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란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주식을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보유 중인 주식을 선택한 후 수신인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선물할 수 있다.

삼성전자 선물 건수는 같은 기간 KB증권 고객중 미성년자 대상 국내 주식 선물 건수의 56.3%에 달했다. AI(인공지능) 수요 급증에 따른 메모리 가격 상

승에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진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다른 대형 반도체주 대비 한 주당 가격이 저렴해 선물 부담이 적은 점도 매수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종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를 반도체 업종 내 최선호주로 꼽으면서 "AI 수요가 확대된 가운데 HBM(고

대역폭메모리) 시장 내 점유율 회복이 기대되고, 경쟁사 대비 가장 많은 CAPA(생산능력)를 확보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주목한다"고 했다.

기아를 두 번째로 많이 선물했는데, 미성년자 국내 주식 선물 건수의 6.5%가 기아로 몰렸다. 글로벌 신차 수요 감소 추세 속에서도 양호한 판매량을 기록한 데다,

원·달러 환율 급등의 수혜, 로보틱스 모멘텀 등이 기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뒤이어 카카오(6.1%), HLB(3.7%), 에코프로비엠(3.6%), 덕산테크피아(3.0%), DS단석(2.5%), POSCO홀딩스(2.1%) 등 순으로 많이 선물했다.

국내 또다른 반도체 대장주인 SK하이닉스(1.5%) 선물 비중은 1%대에 그쳤다. 현재 1주당 가격이 140만원을 넘어선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미성년 자녀에게 많이 선물한 상위 10개 국내 종목의 지난달 수익률은 모두 양(+)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다만 코스피 지수 대비 성과는 종목별로 엇갈렸다.

SK하이닉스의 지난달 월간 수익률이 59.4%로 가장 컸으며, POSCO홀딩스(39.0%), 삼성전자(31.9%) 등이 뒤를 이었다. 모두 지난달 월간 코스피 수익률(30.6%)을 웃돈 수치다.

다만 덕산테크피아(29.2%), DS단석(23.7%), HLB(20.2%), 기아(4.6%),

NAVER(4.7%), 에코프로비엠(7.2%), 카카오(3.3%)는 코스피 수익률을 밑돌았다.

역대급 '불장'에 9세 이하 어린이 주식계좌 개설도 급증했다. 대신증권이 연별별 신규 계좌 개설 건수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대비 지난달 0~9세 계좌 개설 증가율은 119.2%에 달했다. 이는 30대(352.6%)와 20대(308.4%), 40대(220.8%)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이다. 10대 신규 계좌 개설 증가율은 101.1%였다.

앞서 지난달 29일 신한투자증권도 지난 1~3월 미성년자 고객 계좌 개설 현황과 국내외 주식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미성년자 계좌 개설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2%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성년자 계좌의 계좌당 평균 잔고는 약 1000만원이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데이터가 새 먹거리”... 거래소·NXT 수익화 시동

넥스트레이드, 내년 3월부터 유료화
한국거래소, 데이터 사업 정비·확대

한국 증시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로 확장되면서 국내 증시 관련 데이터 사업이 본격적인 수익화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NXT)는 그간 무상제공해온 시장 데이터를 내년 3월부터 유료화할 예정인 한편, 한국거래소(KRX)도 가격체계 조정과 서비스 개편을 통해 관련 사업 정비 및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에 따르면 NXT는 작년 3월 출범 이후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해왔지만, 내년 3월부터는 과금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국내외 주요 시장 정보제공업체들과는 이미 데이터 제공 계약을 체결한 상

태로, 기존 무상 제공을 유료로 전환하는 식이다. 계약된 업체 중 해외사의 비중은 3분의 1 정도로 알려졌다.

적용 요율은 한국거래소의 절반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유료화 전환을 통해 넥스트레이드의 데이터 사업 매출 비중은 회사 전체 매출의 10~20%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대비해 넥스트레이드는 회사 내부 회계 절차를 정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도 국내 증시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자 최근 가격체계를 조정했다. 올해 3월, 과거 수치를 제공하는 '히스토리컬 데이터'의 가격을 인상한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부문 매출은 2024년 19억원이었지만, 작년 한

해 코스피가 주요국 지수 중 수익률을 1위를 기록하는 등 활황을 맞이하자 이는 42억원으로 1년 만에 121% 뛰었다. 작년 말 기준 거래소 히스토리컬 데이터의 해외 고객 비중은 94%에 달한다.

거래소는 데이터 유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를 도입해 데이터 제공 속도를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올해도 클라우드 환경 개선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상품 구조 역시 정비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고객 성향을 파악해 표준화된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시장 단위별 데이터 선택과 활용의 편의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나아가 작년부터 구독형 모델을 확대해 데이터를 매일 제공받고자 하는 고객 수요에도 대응하고 있다. 시장 호가·체결 데이터 등 용량이 큰 데이터도 자동

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거래소 데이터 사업의 주축이자 코스콤과 협업 중인 '실시간 데이터'의 매출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거래소에 따르면 실시간 데이터 매출은 작년 981억원을 기록해 전년(945억원) 대비 3.8% 늘어났다.

특히 해외 투자자들이 데이터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대문' 격인 정보데이터마켓플레이스(KDM)를 중심으로 외국인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상품 개발 측면에서는 공시 정보 기반 데이터 사업을 검토 중이다. 거래소는 상장 공시 시스템을 통해 XBRL(확장성 경영보고언어) 기반 공시 정보를 내년 도입할 계획이며, 현재는 이를 데이터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사업화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허정윤 기자

외인 개인정보 암호화 국내 투자장벽 낮춘다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개정

금융당국이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의 최종투자자 거래내역 중 민감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30일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가이드라인 개정을 완료했다.

기존엔 실명과 여권번호 등 식별번호를 제공했다면 앞으로는 암호화된 투자자구별번호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외국인 통합계좌 제도란 외국인이 국내 증권사 계좌를 직접 개설하지 않고도 현지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를 통해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증권사는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의 최종투자자 거래 내역을 매 분기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해당 내역에 민감한 개인정보가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데 부담을 느낀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거래내역 보고의무는 유지하되,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암호화된 정보로 대체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국인 식별번호 노출이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여럿 제기돼서 당국으로서도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당국이 특정 투자자구별번호의 이상거래 징후를 발견하고 개인정보 제출을 요청하면 실명·식별번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허정윤 기자

변동성 올라탄 서학개미, SOXL·SOXS 동시 베팅

해외주식 Click
순매도 이어지다 최근 매수 전환

미국 증시에서 한동안 이어졌던 '유턴' 흐름이 다시 주춤하며 서학개미들의 자금이 재차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 4월 초·중순까지 대규모 순매도를 이어가던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반도체와 기술주를 중심으로 공격적인 매수에 나서며 투자 방향을 빠르게 틀고 있다.

5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서학개미들은 4월 1일부터 22일까지 누적 기준 15억7200만달러(약 2조3000억원)를 순매도했다. 그러나 4월 23일부터 6영업일 동안 11억300만달러(약 1조6000억원)를 순매수하며 기존 매도 몰락 상당 부분을 되돌렸다. 뉴욕



ChatGPT로 생성한 국내 투자 자금이 미국 시장으로 자금 이동 묘사.

증시가 다시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사상 최고치 경신 기대가 커진 점이 매수 전환의 배경으로 꼽힌다.

최근 일주일(4월 25일~5월 1일) 기준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 반도체 레퍼리지 상품으로의 쏠림이 두드러졌다. 필

라델피아반도체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SOXL)가 약 1억8300만 달러 순매수되며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인텔(약 1억2200만달러), 샌디스크(약 8600만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한 집

중 매수는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수요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데이터센터와 고성능 컴퓨팅(HPC) 시장 확장 속에서 메모리와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가 이어지면서 관련 ETF와 종목으로 자금이 몰린 것이다.

다만 상승 기대와 함께 단기 조정에 대한 경계심도 동시에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를 역방향으로 추종하는 인버스 ETF(SOXS)도 약 7200만달러 순매수되며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상승 레버리지(SOXL)와 하락 베팅(SOXS)이 동시에 매수되며 시장 향성보다는 변동성 자체에 대응하는 전략이 강화된 모습이다.

지수형 상품에 대한 매수도 이어졌다. 나스닥100 ETF(QQQ)와 S&P500 ETF(SPY) 등 주요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 상위권에 포함되며 미국 증시 전반에 대한 투자 선호는 유지됐다.

/허정윤 기자

/허정윤 기자

항공·고무·플라스틱 업계도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고용부, 매출액 감소요건 완화
고용조정 불가피 시 지원금 제공
거래금액, 매출액 50% 차지하는
협력 사업주도 완화 대상 포함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운송업과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항공운송업(H51)과 고무·플라스틱 제조업(C22) 두 업종의 고용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매출액 감소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하고 대신 휴업·휴직을 택할 경우, 정부가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13일부터 원유수급 차질의 직접적 타격을 받은 석유정제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을 대상으로 해당 요건을 우선 완화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그 범위를 항공 및 플라스틱 업계까지 넓힌 것이다.

특히 항공운송업의 경우, 지난달 27일 열린 항공·관광업계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후속 조치다. 항공업계는 항공유 가격이 지난 2월 배럴당 89.03달러에서 4월 둘째 주



중국의 관광 성수기로 통하는 노동절 연휴(6월 1~5일)가 시작됐으나 중국발 항공편 취소가 지난해 대비 두 배 감소한 가운데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한 중국 항공사 부스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216.44달러로 두 배 이상 폭등하자, 비용 부담에 따른 노선 감축과 고용 조정 위기를 호소해 왔다.

플라스틱 제조업 역시 나프타 수급난과 원료 가격 상승으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 원료인 고밀도 폴리에틸렌 가격은 지난 2월 대비 4월 들어 약 70%가량 치솟았다.

이번 조치로 지원 요건이 완화되는 대상은 ▲석유 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항공운송업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등 4개 업종이다. 아울러 이들 업체와 거래 관계에 있으면서 거래 금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을 차지하는 협력 사업주도 완화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업종은 매출액 감소 기준을 엄격히 충족하지 않더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업종 상황 악화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영환 노동부 장관은 “중동전쟁 상황을 감안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고용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aT,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최우수 등급’

9개 평가 분야서 성과 인정 받아

성고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권의 2025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동반성장평가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 및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aT는 공정한 거래 문화 조성, 창의·선도적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상생협력 문화 및 창업생태계 조성 등 9개 평가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두루 인정받았다.

지난달 28일 중기부가 발표한 결과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최우수’를 획득했다. 공사는 2021년부터 2025년도 평가 결과까지 5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을 받았다. 이는 올해 국내 133개 평가대상 공공기관 중 aT 포함, 단 10곳만이 이룬

특히 지난해에는 ▲반려동물 연관 산업 수출 첫걸음부터 정착까지 동반 성장 생태계 구축 ▲스마트 APC 구축·운영 유통 혁신 성과 창출 ▲협력 중소기업에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제공 등의 상생 협업 문화를 선도했다.

그 결과, ‘2025년 동반 성장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제도를 선진적으로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5년 연속 동반성장 평가 최우수 등급 달성은 상생협력을 위한 aT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상생과 공정의 가치를 기반으로,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aT가 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한국동서발전과 6개 풍력발전 출자회사 관계자들이 지난달 29일 풍력발전 설비·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동서발전

동서발전, 재생에너지 설비·안전관리 강화

풍력발전 출자회사 6곳과 간담회

안전 관리 체계 혁신 방안 ▲출자회사 지원을 위한 모회사 내 전담 조직 신설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한국동서발전이 풍력발전 출자회사들과 손잡고 재생에너지 분야의 설비 신뢰도 확보와 안전 관리 체계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동서발전은 지난달 29일 대전 소재 재생에너지저 안전경영실에서 6개 풍력발전 출자회사가 참여한 가운데 ‘설비·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출자회사의 설비 관리 기술을 공유하고 안전 관리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설비·

아울러 동서발전과 발전설비 안전과 설비 신뢰도 확보를 위해 모회사 및 출자회사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장재혁 동서발전 조달협력처장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각 출자회사가 가진 설비·안전관리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됐다”며 “출자회사의 실질적인 안전과 설비 신뢰도 향상을 위해 모회사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무보-ADB, 아태 지역 ‘핵심광물 안보’ 동맹

공급망 구축 공동 금융지원 ‘맞손’
가공·정제·제조공정 수행 지원
최대 5억 달러까지 금융역량 집중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오른쪽)이 3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에서 칸다 마사토 아시아개발은행 총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무보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심광물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손을 잡았다.

무보는 지난 3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제59차 ADB 연차총회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동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ADB가 새롭게 도입한 ‘핵심광물-제조 금융파트너십’의 일환

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무보는 이번 협약에 따라 우리 기업이 기술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핵심광물 처리 및 제조 분야 프로젝트에 최대 5억 달러까지 금융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민간 자본의 해외 진출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이 글로벌 밸류체인에서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력은 개도국의 산업 고도화를 지원하면서 한국의 안정적인 자원 공급처를 확보하는 상생형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에기평, 직무급 인상·출산축하금 신설

노사 합의 전격 체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이 직무 중심의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고 국가적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 간 뜻을 모았다.

에기평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노동조합(노조)은 지난 4월 30일 ▲직무 중심 보수체계 강화 ▲출산축하금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노사 합의를 전격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도입된 전 직원 직무급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것으로, 올해는 전 직무의 직무급을 인상해 전체 보수 중 직무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했다.

이는 단순히 보수 총액을 조정하는 차원을 넘어, 직무의 가치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노사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에기평은 또 사회적 난제인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가족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출산축하금 제도도 전격 신설했다.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를 조성해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송수원 노조위원장은 “조합원의 권익 향상은 물론, 저출생 극복과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노사가 함께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상생하는 노사 관계를 구축해 모두가 행복하고 일하고 싶은 일터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인천항만공, 공공기관 3곳과 청년창업 지원

사회연대경제 육성 박차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역대 공공기관 3곳과 공동으로 청년창업 사업화 및 창업초기 지원금 지원에 나선다.

5일 공사에 따르면 IPA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환경공단 ▲인천대 창업지원단 산하 (주)아이엔유파트너스와 ‘인천지역 사회연대경제 육성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달 28일 인천 연수구 ‘소셜캠퍼스 온 인천’에서 체결된 협약에서 이들 4개 기관은,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부정책 이행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소셜캠퍼스 온 입주기업 및 인천지역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예비)창

업자 사업화 지원 ▲초기 창업기업 고용 지원금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협약은 정부의 사회연대경제 육성 정책에 따른 것이다. 인천 소재의 공공기관들과 대학이 함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강화하고, 관련 분야 청년창업 활성화 및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성장을 지원하게 된다.

이는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경제 활동이다.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소셜벤처 기업 등 다양한 조직이 참여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 모델이다. 특히 지역 기반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NARA CELLAR

역시! 몬테스



결국! 몬테스



**2025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와인 부문 2년 연속 1위**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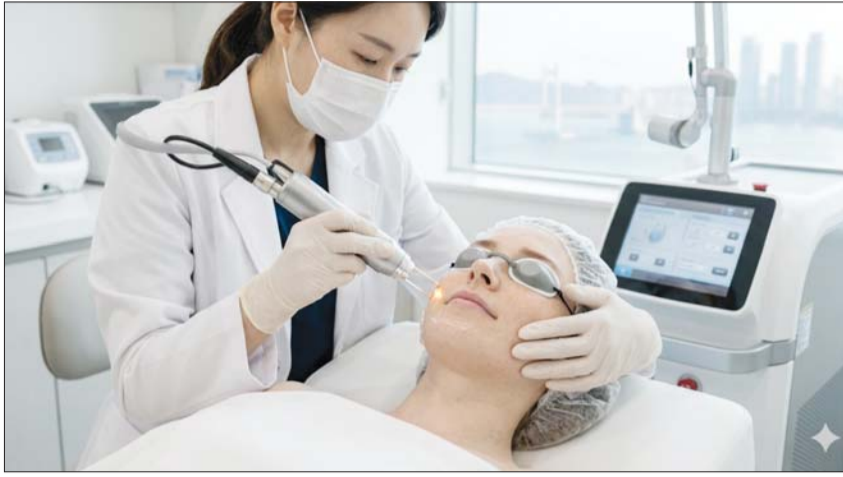
부산시, 지난해 외국인 의료 관광객 7만5879명 유치

전국 순위 첫 2위, 비수도권 1위
대만 방문 급증... 日·中 등 잇따라
전체 67% '피부과' 방문객 차지

부산시가 지난해 외국인 의료 관광객 7만 5879명을 유치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2024년 3만 165명 대비 151.5%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최대치였던 2019년과 비교해도 284.2% 늘어난 성과다.

이번 실적을 바탕으로 부산은 전국 유치 순위에서 처음으로 2위를 달성했다. 서울, 부산, 경기, 제주, 인천, 대구 순으로 의료 관광객이 집계된 가운데 부산은 2년 연속 비수도권 1위 자리를 지켰다. 부산의 의료 관광객 수는 팬데믹 이후 2023년 1만 2912명, 2024년 3만 165명, 2025년 7만 5879명으로 가파르게 회복·성장했다.

국적별로는 대만이 37.4%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2024년 7219명에서 2025년 2만 8373명으로 293% 급증하며 2년 연속 1위였던 일본(22.2%)을 제쳤다. 이어 중국(15%), 러시아(4%), 미



부산의 한 피부과 병원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미용 시술을 받고 있다.

/Gemini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

국(3.7%), 태국(2.7%)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국 219%, 일본 129%, 태국 105%, 미국 77% 등 주요 국가 모두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진료과별로는 피부과가 전체의 67%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피부과 방문객은 2024년 1만 3158명에서 2025년 5만 2798명으로 301% 증가했다. 이어 성형외과(6.5%), 내과 통합(5.3%), 검진센터(3.9%), 치과(1.7%) 순이었다. 일본·대만·중국 방

문객의 피부과 수요 증가가 전체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만 관광객의 부산 방문 급증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부산을 찾은 대만 관광객은 68만 7832명으로 전년 대비 37.4% 늘었으며, 접근성이 좋은 피부과에서 간단한 시술을 받는 것이 하나의 관광 패턴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파악된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지난해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우수 의료 기관

선정·공동 홍보, 국제의료 수용태세 개선, 대만 등 대상 유치기관 마케팅 지원, 중국·러시아·몽골 대상 의료 관광 설명회 및 팸투어 추진 등을 통해 부산 의료 관광 브랜드 가치를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부산시는 올해 '2026 부산의료 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총 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선순환 생태계 강화(Flow), 융복합 차별화(Identity), 목적지 브랜딩(Trust) 등 3대 전략으로 고객 맞춤형 행복 서비스(FIT) 구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의료 관광객 10만 명 유치 목표를 조기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경덕 시장 권한대행은 "의료 관광은 일반 관광보다 체류 기간이 길고 1인당 지출액이 훨씬 높아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며 "치료와 관광이 결합된 고부가 융복합 의료 관광 모델을 구축해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포항시

'시티투어'로 주요 명소 한 번에

포항시는 관광객 유치 확대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5월부터 '2026년 포항관광 시티투어'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시티투어는 화·목·토요일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용 유형에 따라 1박 2일 코스와 30인 단체코스, 팡팡코스, 여름 한정코스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개편에서는 관광 수요가 높은 주요 명소를 하나로 연결한 점이 특징이다. 기존 남북구로 나뉘어 운영되던 팡팡코스를 단일 코스로 통합해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와 과메기박물관, 호미곶광장, 죽도시장, 영일대해수욕장, 스페이스워크 등을 한 번에 둘러볼 수 있도록 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영주시

소수서원 야간개장 운영

영주시는 소수서원 야간개장을 통해 관광객 유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2026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와 연계해 운영 중인 소수서원 야간개장이 관광객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일 점등식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간 이후 방문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운영 기간은 5월 31일까지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개방하며,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영주(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김해시

'고령친화도시' WHO 재인증 목표

김해시가 올해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2941억원을 투입하며 세계보건기구(WHO) 재인증 획득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해시는 2023년 9월 WHO에서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이후 WHO가 제시한 8대 영역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 관련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22개 부서가 총 84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전달 기관 이전,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 본사업, AI안심유타리사업·그냥드림사업 등 복지 사각지대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경남도, 아동복지정책에 1.4조 투입

3대 전략·10대 과제·435개 사업 아동수당 지원 대상 8세까지 확대 AI 기반 위기 아동 조기 발굴 체계화

경남도가 5월 어린이날을 맞아 도내 아동과 가족을 위한 아동복지정책을 대폭 강화한다.

경남도는 '아이 키우기 좋고 아동이 행복한 경남'을 목표로 ▲돌봄·성장 환경 조성 ▲위기 아동 보호 및 자립 지원 ▲아동 참여 및 권리 실현 기반 강화 등 3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10대 추진 과제와 435개 세부 사업에 총 1조 439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돌봄·성장 분야에서는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8세까지 확대하고, 어린이 집 부모 부담 필요경비 지원을 기존 3~5세에서 2~5세로, 외국인 영유아 보육

료 지원은 0~5세로 각각 넓힌다.

다함께돌봄센터는 48개소에서 61개소로 늘리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도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하며 연간 지원 시간도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린다.

보호·안전·자립 분야에서는 'AI빅데이터 기반 위기 아동 조기 발굴 시스템'을 체계화해 사후 대응 중심에서 예방부터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보호 체계로 전환한다.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주거·취업·교육 연계 지원과 자립정착금 등을 강화해 보호 종료 이후에도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권리·참여·소통 분야에서는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정책 수립과 평가 과정에 아동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경남=송병호 기자 metrobusan5@

부·울·경, 125억 규모 이음 프로젝트 추진

'초광역 일자리 공동체' 실현 4년간 524개 일자리 창출 등 목표

부산시가 울산시, 경남도와 손잡고 이음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이음 프로젝트' 공모에 부·울·경이 공동 선정되며 국비 100억원을 포함한 총 12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 청년 인재 유출을 막고 외부 청년 유입을 늘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선, 자동차, 기계·부품 등 주력 산업 분야의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인재 확보부터 정착·산업 고도화까지 전 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해 '초광역 일자리 공동체' 실현을 추진한다.

사업은 앞으로 4년간 524개 일자리 창출, 400명 청년 정착, 1350명 정주 지원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다른 권

역에서 부·울·경으로 유입된 연구·혁신 분야 신규 취업 청년과 지자체 간 출퇴근 또는 거주지 이전 근로자 등이다.

사업은 '인재이음', '정주이음', '미래이음' 3대 프로젝트와 7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다.

인재이음 프로젝트는 자산 형성과 정착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다른 권역에서 지역 주력 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이주·정착비 최대 2000만원과 자산 형성비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한다.

정주이음 프로젝트는 출퇴근 근로자 부담 완화와 고용 서비스 강화에 방점을 찍는다. 1350명을 대상으로 통근비 최대 180만원과 지역화폐 50만원을 지급하고, 통합 네트워크 구축·찾아가는 취업버스 운영·초광역 채용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시간·공간·경계 없는 고용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울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시범 운영

법률·노동·생활·체류 상담 서비스

울산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전담 지원 거점이 마련됐다. 울산시는 울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6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인 동구 일산동 테라스파크 D동 2층에 약 390㎡ 규모로 조성됐다. 상담·교육·커뮤니티 기능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 시범 운영 기간 중 법률·노동·생활·체류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영시간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금·토요일은 휴무다. 평일 이용이 어려운 근로자를 배려해 일요일 운영을 포함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상담창구 모습./울산시

점이 특징이다.

운영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 위탁하며 초기 6명의 인력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상담원은 우즈베키스탄·인도네시아·키르기스스탄 등 다양한 국적으로 구성돼 다국어 상담이 가능하다. /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

경북도, '농촌용수개발사업' 4개 지구 선정

1483억 국비 확보

경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년 농촌용수개발사업'에 도내 4개 지구가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돼 1483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곳은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3개 지구(구미 산정지구 429억원, 영천 영화지구 397억원, 울진 황보지구 220억원)와 농촌용수 이용체계재편사업 1개 지구(예천 풍양지구 437억원)이며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저수지, 양수장, 송수관로 등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해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

급하고자 추진된다.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된 구미 산정 지구와 영천 영화지구는 올해 세부 설계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기본조사대상지로 선정된 울진 황보 지구는 수자원 개발 여건, 용수 수요,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신규 착수지구 지정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예천 풍양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은 기존 저수지와 양수장 등 수리시설을 연계해 지역 수자원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여유수량을 인근 농경지에 공급하고자 추진된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거창군

출산지원금 2000만원... 4배 ↑

경남 거창군이 저출산·인구 감소에 맞서 정주 인구와 생활 인구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인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초 인구 6만 선이 무너지던 이후 정책 전환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거창군에 따르면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출산 지원금 규모다. 2026년 출생아부터 출산 축하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4배 높였으며 7년에 걸쳐 분할 지급해 장기 정착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거창(경남)=이도식 기자

줄 서서 사는 캐릭터 상품... 유통업계, IP 콜라버 효과 '톡톡'

세븐일레븐 헬로키티 키링 선봬 GS25 슈퍼 마리오·몬치치 등 협업 롯데마트 서울시 캐릭터 '해치' 도입 던킨 팝팝푸린 도넛·굿즈 출시

국내 유통업계가 캐릭터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콜라베이션 전략을 통해 소비자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거 캐릭터 상품이 주로 어린이들을 겨냥한 '완구'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식품, 뷰티, 패션 등 생활 전반으로 영역을 넓히며 성인층의 수집욕과 팬덤을 자극하는 핵심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5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유통업계의 캐릭터 IP 콜라베이션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 성과로도 나타나고 있다.

편의점 GS25가 2026년 1분기 스낵류 내 캐릭터 상품 매출을 분석한 결과, 관련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2%나 급증했다. 특히 한정판 굿즈가 포함된 기획 상품의 경우, 출시 직후 품절 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강력한 구매 과급력을 보였다.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올리브 베러'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뚜렷하다. 실시간 구매 랭킹 상위 10개 품목 중 무려 6개가 포켓몬 협업 상품으로 집계됐다. 이렇듯 캐리



GS25는 글로벌 흥행작 '슈퍼 마리오 갤럭시' 협업 상품을 선보인다. /GS25



외국인 관광객들이 명동 거리 일대에서 해치와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면세점

터 상품이 인기를 끄는 배경에는 '백구(가방 꾸미기)'와 '폰꾸(휴대폰 꾸미기)'로 대표되는 잘파세대의 자기표현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 트렌드 변화에 편의점 등 유통업계는 다양한 캐릭터 IP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글로벌 캐릭터 '헬로키티'와 손잡고 음료 뚜껑을 키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헬로키티에이드' 2종을 출시한다. 음료 보관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수집 요소를 더한 이 제품은, 소비자가 직접 키링을 장식할 수 있는 '키링꾸' 요

소가지 설계해 2030세대의 가치소비 심리를 겨냥했다. 앞서 출시된 헬로키티 기획 세트가 출시 5일 만에 품절되며 관련 매출을 전년 대비 7배 가까이 끌어올린 성과가 이번 신제품 출시의 배경이 되었다.

GS25는 글로벌 흥행작 '슈퍼 마리오 갤럭시'와 협업하여 도시락, 피자샌드, 팝콘 등 총 9종의 상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이며, 특히 도시락 구매 고객에게는 캐릭터 13종 중 1종이 랜덤으로 담긴 한정판 키캡을 증정해 반복 구매를 유도한다. 또한 최근에는 레트로 감성을 자극하는 '몬치치' 캐릭터와 협업해 국내 최

초의 '초코카다이프팝콘'을 출시하며 SNS 인증샷 문화를 즐기는 MZ세대의 소유욕을 자극하고 있다. 몬치치 관련 기획 상품은 사전예약 시작 하루 만에 준비수량 1만 개가 완판될 만큼 압도적인 호응을 얻었다.

이외에도 아이파크몰은 창사 20주년을 기념해 자체 캐릭터 '산이'를 런칭하며 공간 경험 중심의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으며, 롯데면세점은 서울시 캐릭터 '해치'를 도입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 문화를 친숙하게 전달하는 체험 콘텐츠를 선보였다. 락앤락은 '별론프렌즈'와 협업한 피크닉 아이템을, 던킨은

'팝팝푸린' 30주년 기념 도넛과 굿즈를 출시하는 등 전방위적인 콜라베이션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국내 캐릭터·라이선싱 시장 규모가 약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캐릭터산업백서'에 따르면 캐릭터 이용을 위해 1회 최대 지출 가능한 금액은 6만 6195원으로, 특히 10대는 9만 549원, 20대는 6만 6463원에 달해 다른 연령대 대비 높게 나타났다. 백서는 "어린 아이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캐릭터 소비가 최근 어른들의 문화로까지 확장되고 있고 소수의 취미를 넘어서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매김했다"면서 "업계에서는 다양한 콘텐츠 영역에서 캐릭터 IP를 발굴하고, 다양한 분야로 접목·활용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캐릭터 IP가 단순한 디자인 요소를 넘어 브랜드의 경험을 확장하고 소비자 체류 시간을 늘리는 핵심 자산이 되었다고 분석했다. 단순히 제품을 사고파는 단계를 지나 캐릭터가 가진 스토리와 감성을 소비하는 '팬덤형 소비'가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롯데칠성음료, 1분기 호실적... 영업이익 91% '썩썩'

매출 9525억, 영업이익 478억 기록 음료·주류·해외 전 부문 수익성 개선

롯데칠성음료가 글로벌 사업의 약진과 내수 시장의 견고한 수요에 힘입어 올해 1분기 괄목할 만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불확실한 대외 여건 속에서도 음료·주류·해외 사업 전 부문에서 수익성을 끌어올리며 '내실 있는 성장'을 증명했다.

롯데칠성음료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9525억 원, 영업이익은 478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6%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무려 91.0% 폭증하며 수익성이 대폭 개선됐다.

음료 부문은 매출 4142억 원(1.5% ↑),



롯데칠성음료 강릉공장 전경.

영업이익 211억 원(62.0% ↑)을 기록했다. 내수 소비 위축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중시하는 '헬시플레이저' 트렌드에 맞춘 에너지음료(8.7% ↑)와 스포츠음료

(11.5% ↑)가 성장을 견인했다.

주류 부문은 매출 1,942억 원(0.7% ↑), 영업이익 156억 원(9.6% ↑)으로 집계됐다. 경기 침체로 주류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소주 '새로'가 매출을 2.6% 끌어올렸으며, 흡술·혼술 문화 확산에 따른 RTD(Ready To Drink) 제품 매출이 74.4% 급증하며 새로운 효자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실적의 가장 큰 특징은 글로벌 사업의 비약적인 성장이다. 글로벌 부문 매출은 37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1% 늘었고, 영업이익은 143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6억 원) 대비 2123%라는 경이적인 성장률을 보였다.

필리핀 법인(PCPPI)이 영업 환경 개선을 통해 8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

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미얀마 법인 역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 이에 따라 전체 매출 중 글로벌 비중은 약 46%까지 확대되며 '글로벌 종합음료기업'로의 도약을 가속화하고 있다.

재무구조의 내실도 탄탄해졌다. 작년 4분기 대비 부채 비율은 165.1%로 2.6%p 감소했으며, 차입금 비율 또한 93.4%로 5.8%p 하락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불확실한 대외 여건 속에서도 사업부별 효율화 노력이 실적으로 가시화됐다"며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밀키스, 새로 등 주요 브랜드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신형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 기업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롯데백화점, '클로이수' 오픈

롯데백화점은 4일 본점 에비뉴엘 3층에 철보 주얼리 브랜드 클로이수 매장을 오픈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매장은 아트피스와 철보 주얼리를 전문으로 선보이는 공간으로, 해당 브랜드를 유통 채널에서 단독으로 운영하는 사례다.

'클로이수'는 1968년부터 철보 기법을 이어온 이수경 작가가 설립한 브랜드다. 철보는 금속 표면에 유약을 입힌 뒤 고온에서 소성하는 방식으로 제작되며, 색감과 입체감이 특징이다.

매장에서는 약 30여 종의 아트피스와 주얼리를 선보이며, 대표 작품 '환타지아'도 함께 전시된다. /김서현 기자

CJ그룹, PGA 무대에서 한국문화 알린다

21일 '더 CJ컵 바이런 넬슨' 티오프 스트리트푸드 브랜드 '두루미' 공개 예정

CJ그룹이 후원하는 PGA 투어 '더 CJ컵 바이런 넬슨(더 CJ컵)'이 현지 시간으로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미국 텍사스주 맥키니의 TPC 크레이그 랜치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총 상금 1030만 달러(약 151억 6000만 원) 규모의 정규 시즌 풀필드 대회로 치러진다.

대회에는 총 144명의 선수가 나선다. 우승자에게는 페덱스컵 포인트 500점과 함께 2년간의 투어 시드, 당해 연도 시그

니처 대회 및 차기 시즌 주요 메이저 대회 출전권이 부여된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디펜딩 챔피언이자 세계 랭킹 1위인 스코티 셰플러가 출전을 확정하며 대회 2연패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CJ그룹은 이번 대회를 한국 문화를 알리는 플랫폼으로 활용한다. 경기장 내에 약 750㎡ 규모로 조성되는 홍보관 '하우스 오브 CJ'에서는 비비고 제품 전시를 비롯해 K-뷰티, 음악, 콘텐츠 등 다양한 브랜드 체험 공간이 운영된다.

특히 CJ푸드빌은 현지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K-스트리트푸드 브랜드 '두루미'

를 처음 선보일 예정이다.

대회장 내 컨디션(식음료 판매소) 활동도 이어진다. 7번 홀에서는 스타 셰프들이 참여하는 다이닝 메뉴를, 17번 홀에서는 비비고 인기 제품을 활용한 한식 메뉴를 갤러리들에게 제공한다.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브릿지키즈'도 지속된다. 델러스 지역 주니어 골퍼 16명을 초청해 PGA 투어 선수들의 멘토링과 원포인트 레슨을 제공하는 유소년 육성 활동이다. 또한 17번 홀에서 기록되는 버디 1개당 1000달러를 적립해 지역 사회 아동 정신건강 지원 단체인 '모멘투스 인스티튜트(Momentous Institute)'에 기부하는 자선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신원선 기자

KT&G DJBIC '월드지수' 편입

KT&G가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BIC, Dow Jones Best-in-Class)'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월드지수'에 2년 연속 편입됐다고 5일 밝혔다. 다우존스 '아시아 퍼시픽·코리아 지수'에도 각각 편입되며, 글로벌 최고 수준의 ESG 경영활동을 인정받았다.

KT&G는 지배구조, 환경, 사회 전반에 걸친 지속가능성 강화 노력을 인정받아 동종 산업군 내 1위로 선정됐다.

특히 이사회 독립성, 다양성 정책, ESG 거버넌스 구조 보유 등 항목에서 최고점을 획득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발맞춘 지배구조 우수성을 입증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2030 Green Impact' 환경 경영 비전에 기반한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및 수자원 관리 등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사회 분야에서는 인권경영 실천 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신원선 기자

GS샵 '판타지이스' 쇼핑 행사

GS샵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상반기 쇼핑 행사 '판타지이스'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행사는 6일부터 17일까지 열리며, 전 상품을 대상으로 최대 7% 카드 할인, 방송 상품 구매 시 최대 3만 원 적립금, 선착순 쿠폰, 특가 상품 등이 제공된다.

모바일에서는 적립금과 쿠폰을 제공하는 '타임어택' 이벤트가 운영된다. 하루 두 차례 선착순으로 적립금과 할인 쿠폰을 지급하며, 일부 생필품은 1만 원대 특가로 판매된다. /김서현 기자

약에서 웰니스까지... 제약업계, 유통과 손잡고 판 키운다

건기식·뷰티·웰니스 분야 확장
다이소·올리브영 등 유통망 다변화
K-건기식 앞세워 글로벌 외형 확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헬스케어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면서 유통 시장에서 새 가치사슬이 형성되고 있다. 웰니스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국내 유통 채널 고도화가 맞물린 모습이다. 여기에 신형 바이오 기업들의 차별화된 소재와 신기술이 더해지면서 헬스케어 산업 확장세가 뚜렷하다.

5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주요 기업들이 헬스케어 영역에서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있다.

유한양행은 올해 1분기 실적으로 연결 기준 매출은 5096억원, 영업이익은 8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8.6%, 영업이익은 2.1% 증가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약품사업 매출 3489억원, 해외사업 1060억원, 헬스케어 481억원, 라이선스 수익 49억원 등의 순이다.

이중 헬스케어 매출은 전년 대비 3% 늘었다. 견조한 성장에는 신제품 출시와 유통망 다변화가 주효했다. 지난 3월



고기능성 더마화장품 브랜드 '딘시' /유한양행



'완전두유' 더진한 렌틸콩 무가당 /한미사이언스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에서 생유산균, 프리바이오틱스를 내놨다. 8종의 다이소 전용 상품을 구성한 것이다. 또 유한양행은 고기능성 더마화장품 브랜드 '딘시'에서도 제품군을 꾸준히 추가하고 있다. 딘시는 국내는 물론 베트남에서도 현지 뷰티 편집숍에 지속 입점함으로써 동남아 지역에서 K뷰티 대표 브랜드 입지를 노린다.

한미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또한 헬스케어 포트폴리오로 전체적인 수익 구조를 개선했다. 올해 1분기 잠정 실적으로 연결 기준 매출은 3537억원, 영업이익은 336억원을 달성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24% 상

승했다. 주력 사업인 의약품 도매, 의료기기, 컨슈머 헬스 등이 고르게 선전했다는 분석이다. 이 중 컨슈머 헬스는 대표 품목으로 고급 두유 제품 완전두유, 시니어를 위한 케어미 완전균형영양식, 약국 전용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프로캄 등을 포함한다.

한미사이언스는 지난해에도 헬스케어 사업에서 전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0%와 21% 성장했다.

대웅제약 역시 건강기능식품 분야를 주요 성과로 꼽고 있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실적에서 건강기능식품 매출이 전년 대비 123% 급증했다. 다이소 등에서 소비자 접점을 마련하고 약국 등에서는 기

존 일반의약품과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등 사업 효율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신형 바이오 기업들도 사업 체질 개선으로 헬스케어 시장을 본격 정조준한다.

바이오헬스케어 소재 전문기업 HLB제넥스는 효소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뷰티 시장을 공략한다. 산업용 효소 카탈라아제부터 유당 분해효소 락타아제, 간기능 개선제 핵심 원료로 알려진 우르소데옥시콜산(UDCA) 합성효소 UDCase 등을 자체 개발해 왔다. 최근에는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기업 코스맥스그룹과 '효소 적용 화장품 소재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국내에서 다져진 헬스케어 모델은 'K건강기능식품' 글로벌 외형을 키우기 위한 기반 사업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미약품그룹 출신 임중윤 사장이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코리그룹의 경우, 홍콩 진출을 추진한다. 그룹 관계사인 디엑스브이엑스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텍스백스를 전개해 온 만큼, K건강기능식품의 글로벌 확산을 이뤄낸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사업 다각화에 유통 업계 변화가 더해지면서 이종산업 간 유기적 성장이 전망된다. CJ올리브영은 웰니스 전용 매장을 확대하며 경쟁력을 강화한다. 올해 들어 서울 광화문에 새롭게 설치한 '올리브베라'는 국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맞춤형 식단, 휴식 관련 제품을 제안한다.

국내 유통 업계 관계자는 "국내 제약 업계에서 일상 맞춤형 제품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유통망 선점 경쟁이 이어지다 보니 마케팅이나 타겟팅 전략을 바탕으로 선순환 구조가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동아쏘시오, '비티젠'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 HLB그룹, 삼성바이오 출신 양은영 영입

에스티젠바이오, 사명 변경
시설 증축 등 생산 역량 확보



시장에서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기업 입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높은 수준의 품질 관리와 생산 역량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인다. 비티젠은 미국식품의약국(FDA), 유럽의약품청(EMA) 등 글로벌 주요 시장을 포함한 15개 국가 규제 기관의 실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했다.

이와 함께 비티젠은 글로벌 진출을 활성화하며 약 1100억원을 투자해 생산

시설을 증축하고 있다. 연간 생산 규모를 9000리터에서 1만4000리터로 확대하고 다품종 소량·중량 생산 설비를 확충한다.

특히 무균 충전 공정에서 오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와 차단된 '아이스레이터 방식 충전 배치'를 도입하는 등 품질 개선에 중점을 둔다.

비티젠 관계자는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바이오 본연의 가치에 집중하는 한편, 제1공장 증축을 통해 글로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 역량을 확보해 세계 시장에서 신뢰받는 CMO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신임 바이오사업개발부부장 사장



양 신임 사장은 우선 서울대학교 약학과 출신이다. 한국 약사 면허와 미국 콜로라도·플로리다·미시건주 약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외 약국 현장에서 근무해 의약품 시장에 대한 이해를 갖췄다.

또 글로벌 빅파마 로슈코리아와 일라이 릴리 코리아를 거쳐 마케팅 전개 등 사업개발 영역에서도 경험을 쌓았다.

/이청하 기자

광장시장에 뜬 올리브영... K-뷰티로 관광객 모은다

시장 정체성 살린 '원물 탐색존' 마련



서울 종로에 위치한 광장시장 내 '올리브영 광장마켓점' 전경. /CJ올리브영

CJ올리브영이 K뷰티와 지역 고유 문화를 결합해 글로벌 관광 상권 경쟁력을 높인다. K뷰티에 중점을 둔 방한 외국인인의 쇼핑 환경을 고도화한 데 이어, 한국인 일상을 체험하는 고부가가치 관광을 새 먹거리로 낙점했다.

올리브영은 서울 대표 전통시장 중 하나인 광장시장에 위치한 '올리브영 광장마켓점'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매장은 광장시장 내 주단부 건물 2층에 244평 규모로 마련됐다. 공간 기획부터 상품 구성까지 광장시장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시장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해 원물 탐색존을 꾸몄다. 청굴, 자작나무, 당근, 숙 등 K뷰티에 적용하고 있는

자연 원료의 식물과 효능을 소개한다. 한국을 상징하는 한복, 두루마기, 장식 등도 함께 선보인다. 특히 퍼스널컬러 진단 시 광장시장 대표 상품인 전통원단을 활용하도록 해 한국적 분위기와 몰입도를 높인다.

이밖에 뷰티 디바이스부터 메이크업까지 각종 K뷰티 체험 서비스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 지원을 바탕으로 이뤄져 외국인 고객의 참여를 돕는다.

/이청하 기자

'빼꼼씨 파워 100정' 100주년 한정판 출시

유한양행, 초기 디자인 재해석



유한양행은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아 '빼꼼씨 파워 100정' 한정판(사진)을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종합비타민 브랜드 빼꼼씨는 일반의약품으로 현대인 피로 회복을 위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생체이용률이 높은 활성형 비타민 B군 3종을 포함해 비타민 B12, C, D, E 등 총 7가지 필수 영양소를 복합 처방했다. 육체 피로, 눈의 피로, 근육통, 기미·주근깨 등을 완화하는 기능을 갖췄고 뼈 건강 유지에도움을 준다.

이와 함께 이번 한정판은 1926년 창립부터 현재까지 국민 건강에 기여하고 있는 유한양행 역사를 기념한다. 제품 용량은 100주년을 상징해 100정으로 구성했다. 또 제품 디자인은 초기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브랜드 전통을

강조했다.

실제로 빼꼼정은 1963년 영양 결핍 시대에 필수영양 보충을 목적으로 발매됐다. 유한양행은 보릿고개 시절 비타민B 결핍, 각기병 등을 예방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자 했다.

빼꼼씨는 이후 60년 넘게 국내 종합비타민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유한양행은 다시 한번 창업주 고(故) 유일환 박사의 창업 정신을 되새긴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타기 직전까지 끌어올린 반전의 맛

셰프의 킷
브라운 버터 오일



캐러멜라이즈드
에니언

벤트치즈번스



스모크
비프패티

By chef 비바닥한 천재

번트비프버거

단품 8,800원 | 세트 10,700원

LOTTERIA™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LG유니참, 위생용품 나눔 '쉐어 패드' 캠페인 강화

LG유니참이 지역 사회에서 위생용품 나눔 활동 '쉐어 패드' 캠페인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본사와 생산공장이 위치한 구미에서 취약계층 내 여성, 청소년, 유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생리대와 기저귀를 정기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구미시청을 통해 위생용품 27만 장을 기부했다. 올해 나눔에는 임직원들의 참여가 더해졌다. /LG유니참



대우건설, 건설현장 안전문화 확산 참여

대우건설은 최근 서울 중구 세운구역 일대에서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 캠페인은 서울지방 고용노동청이 주관한 릴레이 형식의 예방 활동이다. 건설 현장 추락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인근 건설사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현장을 시작으로 을지로3가와 세운구역 일대 6개 현장을 돌며 캠페인을 진행했다. /대우건설



우리은행, 美 진출 기업 투자설명회 개최

우리은행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우리 동행 미국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한미 관세 협상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현지 생산설비 구축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미국 진출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지난해 베트남 투자 설명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우리 기업들의 선제적 시장 안착을 돕는 데 주안점을 뒀다. /우리은행

부채표 가송재단

이규섭 원장, 치과의료봉사상

부채표 가송재단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제15회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 수상자로 이규섭 하안 이치과 원장(사진)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상자인 이규섭 원장은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출신으로 지난 30여년간 치과계에서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개원 후 구강 건강 향상을 위한 의료봉사를 지속하며 특히 장애인 치과 진료에 힘썼다. 이 원장은 1995년부터 성애노인요양원에서 월 1~2회 무료로 의치를 제작하는 봉사를 진행해 왔고, 매월 1회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한몸에서 무료 진료를 지원했다. /이정하 기자 mlee236@



부음

▲신항호(전 대전대 연극영화학과 교수·한국영화교육학회)씨 별세 = 5일,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7일 오전 4시30분. 02-2276-7696

학자 출신 '통일·외교통'... 이흥구 전 총리 별세

향년 92세, 서울아산병원 빈소
서울대 교수 지낸 정치학자 출신
통일원 장관·주미대사 등 역임
김영삼 정부서 제28대 총리 맡아



이흥구 전 국무총리

이흥구 전 국무총리가 5일 별세했다. 향년 92세. 1934년 경기 고양군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기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법대 행정학과에 입학했으나 이듬해 자퇴했다. 이후 미국 에모리대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예일대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69년부터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로 재직하며 한국정치학회 회장, 세계정치학회 집행위원 등을 지낸 학자 출신이다. 고인은 1988년 노태우 정부에서 국

토통일원 장관을 맡으며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대통령 정치특별보좌관, 주영국 대사 등을 역임하며 외교·통일 분야에서 활동했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을 거쳐 제28대 국무총리를 지냈다. 이후 1996년 신한국당 대표위원을 맡으며 정치권에 본격 진입했고, 15대 총선에서 전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에는 의원직을 내려놓고 주미국 대사로 부임했다.

귀국 후에는 중앙일보 고문을 맡아 칼럼을 연재했으며, 서울국제포럼 이사장, 유민문화재단 이사장, 대한배구협회 고문, 아산재단 이사 등 다양한 사회 활동을 이어갔다. 유족으로는 배우자 박한옥 씨와 딸 소영·민영 씨, 아들 현우 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0호에 마련됐으며, 영결식은 8일 오전 8시, 발인은 오전 9시에 진행된다. 장지는 천안공원묘지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LG, ESG 평가 'Top 1%' 3년 연속 선정

S&P CSA서 산업군 최고점 획득
DJ BIC 월드 지수 14년 연속 편입

LG전자가 공신력을 인정받는 글로벌 유력 ESG 평가기관들로부터 연이어 ESG 경영 리더십을 인정받고 있다. LG전자는 올해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 S&P 글로벌이 발표한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CSA)'에서 3년 연속으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Top 1%'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S&P 글로벌은 글로벌 기업들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분야별 분석을 종합한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를 토대로 우수 평가를 받은 기업들을 산업군에 따라 Top 1%, 5%, 10%로 구분해 발표한다. 이번 평가는 62개 산업군

9243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LG전자는 '가전 및 여가용품' 산업군에 속하는 기업 중 가장 높은 77점을 획득했다. 전체 평가 대상 기업 가운데 각 산업군별 Top 1% 등급을 획득한 기업은 총 70개로, 국내 기업 중에서는 LG전자를 포함해 단 2곳만이 Top 1% 평가를 받았다. LG전자는 이와 함께 CSA 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DJ BIC(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월드 지수에도 14년 연속 편입됐다. 지속가능성 분야를 선도하는 글로벌 2500대 기업 중 상위 10%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LG전자는 환경 정책 및 관리, 인권 경영, 고객 관계, 공급망 관리, 제품 책임관리 등 전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차현정 기자 hyeon@

공영홈쇼핑, 청년인턴 18명 공개 모집

16일까지 누리집서 지원 접수
일반·IT·방송 등 블라인드 채용

공영홈쇼핑이 '2026년도 채용형 청년 인턴'을 공개 모집한다. 5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모집분야는 일반, 정보기술(IT), 방송 등이다. 채용은 공공기관으로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학력, 출신 지역, 성별 등이 노출되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한다. 입사 지원은 이달 16일까지 공영홈쇼핑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서류, 필기, 면접 전형과 채용검진을

거쳐 6월 26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합격자는 6개월의 인턴 과정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보건관리사, 전기설비 담당자(안전관리자) 등 전문지원직도 함께 채용한다. 채용 규모는 전문지원직 3인을 포함해 총 18명 규모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공영홈쇼핑은 공익적 가치 실현을 최우선으로 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우리 중소기업과 농축수산물 판로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카카오, 시니어 3000명 AI·디지털 교육

전국 150개 기관으로 교육 확대
카카오톡·맵·T 활용법 등 안내

카카오 임팩트재단이 시니어 3000명을 대상으로 AI 포함 디지털 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카카오 임팩트재단은 5일 '2026 찾아가는 시니어 디지털 스쿨'을 통해 전국 시니어 대상 디지털 교육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교육은 전국 150개 시니어 기관에서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지난 4일부터 오는 7월까지는 100개 노인복지관에서 60세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생활 밀착형 교육을 진행한다. 카카오톡, 카카오맵, 카카오T 활용법과 공공서비스 이용법

을 교육하고, AI 활용 과정도 새롭게 도입한다. 9월부터 11월까지의 50개 기관에서 약 1000명을 대상으로 금융 교육 프로그램 '사각사각 페이스쿨'을 운영한다. 카카오페이 활용법과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통해 안전한 디지털 금융 사용을 지원한다. 이번 교육기관 공모에는 353개 기관이 신청해 약 2.5배 경쟁률을 기록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카카오 그룹 ESG 슬로건 '더 가까게, 카카오'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대표 사업이다. 2024년부터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시니어 금융교육협의회와 협력해 현장 교육과 맞춤형 교재를 무상 지원해왔다. /최빛나 기자



카카오 '2026 찾아가는 시니어 디지털 스쿨' 본격 운영 대표이미지. /카카오

SKT, 포켓몬 런서 갤럭시 체험 부스

삼성전자와 체험 부스 공동 운영
갤럭시 워치로 러닝 기록 측정

SK텔레콤은 러닝 행사 '포켓몬 런 2026 인 서울'에 메인 스폰서로 참여한다고 5일 밝혔다. 포켓몬 30주년을 기념해 열린 행사에서 SK텔레콤은 삼성전자와 행사 부스 'SKT×갤럭시(Galaxy)'를 공동 운영한다. 메인 주제는 '포켓몬 런 트레이닝 센터'로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러닝 중 심박수, 페이스, 칼로리 등을 갤럭시 워치를 통해 측정한다. 완주 후 현장에서 즉석 촬영한 사진에 '나만의 포켓몬 런



5일 서울시 독서한강공원에서 열린 '포켓몬 런 2026 인 서울' 행사 참가자들이 이벤트를 즐기고 있다. /SK텔레콤

SOOP, EWC LCK 선발전 생중계

다국어 중계로 글로벌 팬 공략

SOOP(쑤)이 EWC LCK 선발전 전 경기 운영과 다국어 생중계를 맡아 글로벌 e스포츠 팬 공략에 나선다. EWC(이스포츠 월드컵)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클럽 기반 e스포츠 대회다. SOOP은 5일 'e스포츠 월드컵(EWC)LCK 선발전'을 운영하고 전 경기를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이번 LC

K 선발전은 본선 진출을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두 개 팀이 추가로 EWC 본선 무대에 오른다. 젠지 이스포츠는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초청 참가한다. 국문 중계는 채민준, 김규환 캐스터와 김동준, '프린스' 이재환 해설이 맡는다. 영문 중계는 발데스, 아틀러스, 디곤 캐스터와 울프, 옥스 해설위원이 참여한다. /최빛나 기자



www.newsis.com

공감언론
뉴스시스

뉴스시스는 대한민국 뉴스의 허브(Hub)입니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를 비롯한 국내 주요신문과 포털·인터넷 매체 등 수많은 고객사가 뉴스시스와 손을 잡고 뉴스시스의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스시스가 전국 취재망을 통해 24시간 생산한 뉴스는 신문·잡지·인터넷 매체부터 정부기관 및 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배포되어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뉴스시스는 하루 평균 3000여 개 기사와 사진을 제공합니다



출고기사. 1500여개



사진기사. 1500여개

뉴스시스는 젊습니다

생각이 젊고 행동이 젊은 뉴스시스!

시장독점에 대해 설립된 뉴스시스는 좀 더 능동적, 좀 더 적극적, 좀 더 공격적으로 세상을 바꿔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생신청 때 숨긴 소득, 무조건 사기죄일까?



박규익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채무자가 혹시 재산을 숨긴 것은 아닐까?” 채권자 입장에서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간 채무자가 허위로 도산 절차를 밟아 채무를 면제받으려는 것은 아닌지의 관심이 들 수밖에 없다. 실제 회생절차의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및 수입 상황에 관해 허위의 내용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제출했음이 밝혀진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법원을 상대로 한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어 채무가 면제되거나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는 등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회생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행위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 및 수입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단순히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한 주

장이 피고인의 회생계획인가의 요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로 인해 회생계획인가 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설명한다.

채무자 A가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수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는데, 회생계획안 요약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A가 받는 월 급여를 400만원으로 기재했다. 그런데 A는 회사로부터 약 2000만원 상당의 추가수당을 자신의 아내 명의 계좌로 수령했다. 검찰은 채무자 A가 실제와 다른 허위의 재산관계를 기재해 법원을 기망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아 사기로 기소했다.

원심 법원은 A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A의 수입에 관한 허위진술을 근거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뤄졌고, 이를 전제로 회생채권에 대한 상환 여부, 면제 범위 및 잔여 채권액, 분할 변제액 등을 산출했는데, 만일 추가수당이 반영됐다면 회생채권에 대한 상환가능금액, 면제율, 분할 변제액 등에 관해 달리 정해졌을 것이라는 이유다.

그러나 대법원은 결론을 바꿔 A에 대한

사기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A가 추가수당을 회생계획안에 반영하지는 않았으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해 제출하지는 않았고, 이를 그대로 법원에 사실대로 알렸다고 하더라도 추가수당이 일시적인 수입인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변제채원이 되는 장래 추정소득이나 회생계획의 변제율이 반드시 변경됐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A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을 전후해 추가 수당을 수령했는데, 결정 이후 추가 수당을 수령한 것에 대해서는 “도산절차의 채무자가 채무를 감면받아 재정적 곤궁에서 벗어난 이후의 이익을 갖고 추가적인 근로 등을 제공해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단순한 재산 누락이 곧바로 사기죄 성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은닉된 소득이 반영되었을 때 채무보다 재산이 많아져 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변제율이 명백히 상승할 것이 예상되는 등 인가 결정에 ‘유의미한 타격’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 단편적인 소득 누락만을 꼬투리 잡아 무리하게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보다, 그것이 인가 결과에 미칠 실질적 영향력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차세대 배터리 전쟁의 시간



이지수첩
원관희 (산업부)

지난달 21일, 중국 베이징. CATL이 ‘수퍼 테크데이’ 행사장에서 꺼내 든 숫자는 우리 배터리 업체를 얼어붙게 했다. 10%에서 80%까지 단 3분 44초. 완충에 가까운 98%까지도 6분 27초. 영하 30도 혹한에서도 10분 안에 충전이 끝난다. 거기에 반고체 수준의 신형 배터리를 탑재한 세단은 한 번 충전으로 최대 1500km를 달릴 수 있다.

“한마디로 공포였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계 한 전문가가 솔직하게 털어놓은 말이다. 기술 격차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한중간의 격차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숫자는 냉정하다. 올해 1~2월 중국을 제외한 미국·유럽 등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서 국내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은 28.3%로 전년 동기 37.1%보다 8.8%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CATL과 BYD의 합산 점유율은 36.7%에서 44.2%로 7.5%포인트 상승했다. 판이 기울었다는 말로도 부족하다. 이미 판 자체가 없어졌다.

뒤집어진 판에서 한국업체들이 꺼내 든 반격 카드는 전고체 배터리다. 삼성SDI는 최근 인터배터리 전시회에서 전고체 브랜드 ‘솔리드스택’을 공개하고 내년 하반기 휴머노이드 로봇용 소형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전고체가 시장 주도권을 바꾸려면 얼마나 걸릴까. 업계 인콰의 답은 한결 같다. 지금부터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양산 자체도 이제 막 시작 단계인데 초기에는 가격이 너무 높아 일부 프리미엄 모델과 로봇에나 쓰일 것이다.

그나마 숨통을 틔워주는 건 미·중 갈등

이다. 미국과 유럽이 중국 배터리를 밀어내면서 한국 기업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지정학이 기술 격차를 매워주진 않는다.

배터리는 반도체와 함께 한국 제조업의 마지막 보루다. 그 보루가 흔들리고 있는데 산업 현장에서는 정작 정부 손길이 닿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 차세대 배터리 국가 R&D 로드맵 수립 등 말은 무성했지만 속도가 없다.

기업이 뛰는 동안 정부는 제자리걸음이다. 중국이 국가 자본과 정책을 총동원해 배터리 생태계를 키우는 동안, 우리 기업들은 홀로 버텼다. 그 한계가 지금 점유율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 하나의 기술력으로 국가 대 국가의 싸움에 이길 수는 없다. 시간이 부족하다. 국가가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wkh@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6일 (음 3월 20일) 표준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옛 인연에서 뜻밖의 소식이 들려와 즐거운 하루가 됩니다. 60년생 무리한 확장은 금물이나 현재의 상태에 집중하세요. 72년생 출장이나 외출에서 좋은 기회를 얻습니다. 84년생 생각지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으니 지갑 관리에 신경 쓰세요.



49년생 가족들의 지지 덕분에 마음이 편안하고 든든해집니다. 61년생 업무상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오전 시간이 길합니다. 73년생 작은 양보가 큰 이득으로 돌아오니 먼저 손을 내미세요. 85년생 새로운 프로젝트나 계획을 세우기에 최적입니다.



50년생 건강 컨디션이 매우 좋으니 활력을 유지하세요. 62년생 리더십을 발휘할 상황이 생깁니다. 74년생 실수 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86년생 연인이나 친구와의 대화에서 솔직함이 최선입니다.



51년생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63년생 남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자신의 주관을 뚜렷이 하세요. 75년생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으니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87년생 경쟁자가 나타날 수 있으니 성실함으로 승부하세요.



52년생 문서 운이 좋으니 계약이나 중요한 서류를 검토하기 좋습니다. 64년생 대인 관계가 활발해지는 날입니다. 새로운 인맥을 쌓기에 좋습니다. 76년생 예상치 못한 작은 보너스가 기대됩니다. 88년생 자기개발에 힘쓰면 큰 결실을 맺게 됩니다.



53년생 운전이나 보행 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 날입니다. 65년생 말 한마디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경청하세요. 77년생 투자나 투기성 거래는 멀리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89년생 계획이 틀어지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하면 문제 없습니다.



54년생 주변의 칭송을 들으니 명예가 올라가고 기분이 상쾌합니다. 66년생 협력자가 나타나 막혔던 일을 시원하게 해결해 줍니다. 78년생 직장에서 승진이나 포상 등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90년생 애정운이 최고조입니다.



55년생 자녀의 경사로 집안에 웃음꽃이 피는 날입니다. 67년생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겨 원하던 물건을 구매하게 됩니다. 79년생 업무 효율이 좋아지니 조기 퇴근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91년생 끈기 있게 밀어붙인 일이 결실을 보기 시작합니다.



56년생 갑작스러운 외출이나 이동은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68년생 감정적인 대응은 일을 그르칩니다. 80년생 구설수가 우려되니 비밀 이야기는 다음으로 미루세요. 92년생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보다는 마무리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57년생 기분 전환을 위해 짧은 여행이나 드라이브를 추천합니다. 69년생 직장 내 중재자 역할을 맡아 원활한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81년생 금전 흐름이 원활해지니 가게 운영에 승통이 트입니다. 93년생 배움에 대한 열망이 커지는 날입니다.



58년생 근심하던 일이 해결되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됩니다. 70년생 동료들과의 협동심이 발휘되어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킵니다. 82년생 뜻밖의 귀인이 나타나 진로에 대한 조언을 해줍니다. 94년생 적극적인 태도가 행운을 부릅니다.



59년생 다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다 본인 일을 놓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71년생 건강을 위해 채식 위주의 식단을 추천합니다. 83년생 작은 실수가 커질 수 있으니 업무 검토를 두 번 세 번 하세요. 95년생 경청하는 자세가 이득입니다.



김상회의四季 기도로 만든 인연

10년도 더 된 일이다. 당시 중소 의류기업의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던 K양은 79년 기미생(己未生) 정월 생일인데, 삼십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몹시 초조해했다. 대학교 1학년 때 잠깐 남자친구를 만난 것 빼고는 모태 솔로 소리를 들을 만큼 남자친구 인연이 없었다. 소개팅해도 내 마음에 괜찮으면 상대방이 반응이 없고, 남자 쪽에서 관찮아하면 내가 싫거나 하는 식이었다. 그러던 중 삼십대 중반이 훌쩍 넘어가자 혹시 평생 남자 인연이 없는 것은 아닐까 하던 차에 필자를 찾아왔다. 살펴보니 월지에 귀문살이 있었고 일지와는 원진살이 포진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는 만나서 잘 나가다 사소한 일로 삐져거리며 틀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옛날에는 인연이 특징이다. 내가 좋아하면 나를 탐탁해 하지 않고 나는 별 마음이 없는데 상대방은 호감을 표시한다. 상대방이 나 좋다는 티를 내면 마음은 화들짝 놀라 더 도망가는 형국이 바로 귀문과 원진이 함께 할 때의 인연 특징이다. K양 스스로 얘기한 것처럼 남녀 인연이 그럴 수밖에 없음을 필자를 펼쳐 보면 알 수 있다. 해결방법은 사주 중 귀문살이 있기에 방해 없이 인연이 순조롭게 이어지는 조상기도와 함께 칠성 기도이다. DNA로 직접 인연 줄이 닿는 조상 영가들을 흠뻑하는 것은 자손들의 앞날을 편안히 하는 것이라는 민간신앙적인 믿음이며, 여기에 좋은 인연을 가피한다고 알려진 칠성 기도는 인간사 약초 같은 힘이 있다. 우연의 일차라 볼지 몰라도 이 기도 발원 후 K양은 소개받은 남성과 1년 안에 혼인 계약을 맺었고 그렇게 해서 딸을 얻었다. 그 딸의 이름을 필자가 작명해 주었고, 그아가가 벌써 자라서 중학교에 간다며 일요 법회에 함께 참석했다. 과학이 발달해도 설명되지 않는 일이 부지기수다. 손해 볼 것 없다. 기도가 담긴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8					7	2
	2	7		6		8
9		3			2	1
		9	2		1	
	5					3
			5		3	6
	7	2	4			9
	3			2		8
4	8					3

1	9	7	6			4	8
	2					8	7
8	7						3
				9			5
			8	5	7		
7			1				
2							4
6	5	4					9
4	1				8	9	5

QR코드
할인도서

8	9	2	1	9	8	6	7
1	8	7	2	6	5	8	9
8	9	6	5	8	7	2	1
6	2	9	8	9	7	1	1
1	8	7	8	6	1	9	2
9	1	9	1	7	2	6	8
5	7	1	2	8	9	6	8
7	8	6	9	1	1	2	9
2	6	1	9	5	1	7	8

9	9	6	8	2	1	8	7
1	6	8	2	8	1	7	9
1	7	1	8	9	5	6	8
2	8	9	6	1	7	9	1
7	8	9	1	7	8	2	1
9	1	2	9	6	1	8	7
8	9	1	7	2	6	9	1
6	1	8	1	7	8	9	2
8	2	7	9	8	9	1	1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0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2009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의대 막히고 반도체 뜨고... 영재학교 지원 지형 '흔들'

전국 8개 영재학교 789명 선발
지역선발 370명, 전체 46.9%
지역의사제·계약학과 선호 맞물려

〈2027학년도 영재학교 지역선발 배정규모〉

/종로학원

No	학교명	전국단위 선발		지역선발 배정 인원		합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1	서울과학고	38	31.7%	82	68.3%	120	100.0%
2	경기과학고	73	60.8%	47	39.2%	120	100.0%
3	한국과학영재학교	102	85.0%	18	15.0%	120	100.0%
4	광주과학고	26	28.9%	64	71.1%	90	100.0%
5	대구과학고	46	51.1%	44	48.9%	90	100.0%
6	대전과학고	56	62.2%	34	37.8%	90	100.0%
7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39	46.4%	45	53.6%	84	100.0%
8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39	52.0%	36	48.0%	75	100.0%
	합계	419	53.1%	370	46.9%	789	100.0%

2027학년도 영재학교 입시가 혼합 국면에 들어섰다.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른 지원감소 요인과 반도체 계약학과 선호 확산으로 지원선호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다. 여기에 2028학년도 대입에서 상위권 대학 수시 확대와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까지 겹치며, 이공계 특화 교육을 받는 영재학교 출신의 입시 유리함과 지원 흐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5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영재학교 입시는 지역균형 선발이 강화된다. 전체 선발 인원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를 지역 선발로 배정하면서 특정 지역 쏠림을 완화하려는 흐름이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

전국 8개 영재학교 모집 정원을 살펴

보면, 정원 내 기준 총 789명을 선발하며 이 가운데 전국 단위 선발은 419명(53.1%), 지역 선발은 370명(46.9%)으로 집계됐다. 지역 선발 인원은 서울 57명, 광주 53명, 경기 39명, 대구 32명, 인천 28명 순이다.

학교별로 보면 지역 선발 비중은 더 두드러진다. 서울과학고는 전체 120명 중 82명(68.3%), 광주과학고는 64명(71.1%)을 지역 선발로 운영하는 등 일

부 학교에서는 지역균형 선발이 중심 구조로 자리 잡은 모습이다. 반면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전국 단위 선발 비중이 85%로 가장 높아 학교별 선발 방식의 차이도 나타났다.

최근 경쟁률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영재학교 경쟁률은 ▲2024학년도 5.86대1 ▲2025학년도 5.96대1 ▲2026학년도 5.72대1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과학고 3.41대1, 자사고 1.22대1,

외고 1.47대1, 국제고 1.87대1과 비교하면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2027학년도에는 지원 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영재학교는 의대 지원 시 불이익이 적용되는 구조로, 의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는 기피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반도체 계약학과 선호가 높아지면서 이공계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선호도가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의대 진학에 적성이 맞지 않는 상위권 학생들이 공학계열로 진로를 전환하면서 영재학교 지원 수요가 일부 유입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8학년도 대입에서 상위권 대학의 수시 선발 확대와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이 예정되면서 수학·과학 중심의 심화 교육을 받은 영재학교 출신의 경쟁력이 부각될 수 있다고 종로학원 측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 영재학교 입시는 지원 감소 요인과 증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는 가운데, 전체 경쟁률보다

는 학교별·지역별 지원 양상과 편차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지역 균형 선발 확대와 함께 의대와 공학계열 진로 선택이 분화되는 흐름 속에서 영재학교 지원 구조도 변화가 예상된다”라며 “수시 확대와 고교학점제 시행까지 맞물리면서 지원 감소와 증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는 복합적인 입시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원서접수는 한국과학영재학교가 5월 6일부터 시작해 5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서울과학고는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영재성 검사는 7월 4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되고, 영재성 다면평가 캠프는 한국과학영재학교가 8월 15일, 나머지 학교는 8월 8일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한국과학영재학교가 8월 25일, 이외 학교는 8월 21일 발표된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 역세권 규제 완화 325곳으로 확대

일반상업지역 상향 가능 대상 넓혀
민간 참여 늘리고 지역개발 격차 해소

서울시가 역세권 개발 규제를 풀어 강북·서남권 등 비중심 지역까지 확산에 나선다. 서울시는 일반상업지역 상향 가능 대상을 기존 153개 중심지 역세권에서 서울 시내 325개 모든 역세권으로 넓히고, 11개 자치구의 공공기여 부담도 용적률 증가분의 50%에서 30%로 낮춘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5일 발표한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의 후속 조치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을 개정하고 5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서울 도심 일부에 집중됐던 역세권 개발 효과를 생활권 단위로 넓히는 동시에, 민간

사업자가 실제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수익성과 공공성을 다시 조정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지연됐던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해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간 개발 격차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용도지역 상향 대상 확대다. 기존에는 153개 중심지 역세권에 한해 일반상업지역까지 상향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서울 시내 325개 모든 역세권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강북·서남권 등 비중심지에서도 근린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머물던 개발 한계를 넘어 보다 높은 밀도의 복합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공기여 부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용적률 증가분의 50%를 공공기여로 부담해야 했지만 이를 30% 수준으로

낮춘다. 적용 대상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서울 평균의 60% 이하인 은평, 서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동대문, 강서, 구로, 금천 등 11개 자치구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사업성이 낮아 정체됐던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2019년 시범사업 4곳에서 시작해 현재까지 68곳으로 확대된 서울시 대표 도시재생 사업이다. 그동안 공유오피스, 키움센터, 산후조리원, 데이케어센터 등 지역 필요시설 119개소와 공원·보행공간 등 약 7만 8000㎡의 기반시설을 확보했으며, 미리 내집 879세대를 포함해 총 1만 6861세대의 주택 공급 성과도 거뒀다.

/이현진 기자

성남시, 전국 최초 ‘에너지 안심지원금’ 지급

세대당 10만원 지원

성남시가 중동 사태에 따른 국가 자원안보 위기 대응 차원에서 시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에너지 안심지원금’을 지급한다.

성남시 6일부터 ‘성남시 에너지 안심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가 부담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에너지법’,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성남시 에너지 기본조례’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해 총 420억 7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2026년 4월 6일 오후 6시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41만 218명이다. 대상자에게는 세



대당 10만원이 지급되며, 지급 방식은 현금(계좌이체), 선불카드, 성남사랑상품권(모바일)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현금과 선불카드 신청은 오는 6월부터 6월 12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로 진행된다. 신청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현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 통장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계좌이체는 신청 후 최대 5일(근무일 기준) 이내 지급될 예정이며, 선불카드는 현장 접수 즉시 발급된다.

/성남(경기)유진재 기자 yujin@

경기도, 우수 소공인 제품 발굴 돕는다

경상원과 박람회 지원 참가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도내 경쟁력 있는 소공인의 우수 제품 발굴과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 ‘2026년 경기도 소공인 박람회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공인 박람회 지원사업’은 경기도 내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을 갖춘 소공인의 판로 확대와 인지도 제고를 위해 국내외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국내 최대 규모 중소기업 중

합 전시회인 ‘제29회 대한민국 우수상품전시회(G-Fair Korea 2026)’와 북미 최대 소비재 전문 전시회 ‘ASD Market Week’ 등 국내·해외 2개 분야로 나눠 지원한다.

모집 규모는 총 80개사로, ▲국내 박람회(G-Fair Korea 2026) 참가 70개사 ▲해외 박람회(ASD Market Week) 참가 10개사를 각각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G-Fair Korea 2026’은 약 500개 기업이 참여하는 대표 B2B 전시회로, 오



는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다. 경상원은 참가기업에 부스 설치, 홍보물 제작, 온라인 기획전, 국내외 바이어 상담, 통·번역 등 전반적인 박람회 참가를 지원한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32 | 해질 / 19:26

5월

6일 (수)

음력 : 3월 20일

수도권 날씨

11 ~ 23°C

- 운동 지수 ■■■■■■■■■■
- 빨래 지수 ■■■■■■■■■■
- 세차 지수 ■■■■■■■■■■
- 외출 지수 ■■■■■■■■■■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중동 긴장 다시 고조...美·이란 호르무즈 교전에 휴전 중대 고비

▲美 프리덤작전 첫날 한국에 불뚱...트럼프는 사과 대신 압박

/사진 뉴시스

▲이란 UAE 공격에 국제사회 자제 요청...“긴장 멈추고 대화해야”

▲외교부 “호르무즈 韓선박 화재 진압 완료...예인 후 원인 파악”

▲주북 러대사관, ‘김정은-푸틴 첫 회담 7주년’ 친선모임...북 외무성 참석

▲UAE “이란발 미사일 15발, 드론 4대 요격”...아이언돔도 나섰다



유통업계
캐릭터 콜라보로
소비자 공략
L1



Life

제약업계
유통과 손잡고
헬스케어 키운다
L2



배터리 이어 반도체까지... 사업구조 바뀌 흑자신화 쓰다

CEO 왕칭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 부회장

“삼성이 돌아왔다.”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 부회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전한 고객사 평가다. HBM 경쟁에서 밀렸던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이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은 전 부회장 체제 출범 약 2년 만이다.

◆ LG반도체 거친 ‘체질 개선형’ 리더

전영현 부회장은 삼성전자 내부에서 성장한 전형적인 ‘삼성맨’과는 결이 다르다.

한양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KAIST에서 석·박사를 받은 뒤 LG반도체에서 커리어를 시작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LG반도체가 현대전자에 합병되자 2000년 삼성전자로 자리를 옮겼다. 경쟁사 출신으로 메모리사업부장까지 오른 사례는 드물다. 이에 전 부회장은 성과 중심 인사 기조를 상징하는 인물로 꼽힌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메모리사업부장을 맡은 전 부회장은 10나노급 D램 세계 최초 양산을 이끌며 경쟁사와의 기술 격차를 확대했다. 낸드플래시 분야에서도 V낸드(V-NAND) 기반 프리미엄 제품 양산을 본격화하며 시장을 이끌었다. 당시 삼성전자가 메모리 분야에서 경쟁사를 크게 앞서 나갈 수 있었던 데는 전 부회장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2017년 그는 반도체 현장을 떠나 돌연 삼성SDI 대표이사를 맡았다. 갤럭시 노트7 배터리 폭발 사태 여파로 9000억 원대 적자를 기록한 삼성SDI의 위기 수습을 위한 발탁이었다.

이에 전 부회장은 스마트폰 중심 소형 배터리 비중을 줄이고 전기차·ESS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하며 사업 구조를 재편했다.

취임 첫해 1조3000억 원 수준이던 중대형 배터리 매출은 4년 뒤 4조6000억 원 규모



전영현 부회장 주요 연혁

한양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KAIST 전자공학 석사
KAIST 전자공학 박사

- 1991 LG반도체 D램 개발팀 연구원 입사
- 2000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입사
- 2009 삼성전자 DRAM개발실장 부사장
- 2010 삼성전자 Flash개발실장 부사장
- 2012 삼성전자 메모리 전략마케팅팀장 부사장
- 2014 삼성전자 DS부문 메모리사업부 부사장
- 2017 삼성SDI 대표이사 사장
- 2020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회장
- 2021 삼성SDI 이사회 의장 부회장
- 2023 삼성전자 미래사업기획담당 부회장
- 2024 삼성전자 DS부문장 부회장
- 2025 삼성전자 DS부문장 겸 메모리사업부 부대표이사 부회장(現)

경쟁사 LG반도체 출신 성과중심 리더
메모리사업 이끌며 D램 기술격차 확대

삼성SDI 대표이사 맡으며 구조재편
전기차·ESS 중심으로 흑자전환 성공

관행 깨고 DS·메모리 동시에 맡아
판단오류 인정하고 조직 변화 이끌어
고객사 눈높이 맞춘 원스톱 전략 펼쳐
1분기 역대최대 실적... 전사 이익 94%

파운드리 사업, 노사문제 등 ‘과제’
지속성장 가능한 모멘텀 확보 강조

로 확대됐고 2019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BMW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5세대(Gen 5) 배터리 공급을 시작하며 삼성SDI를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기업으로 끌어올렸다.

반도체 전문가가 배터리 사업 구조를 바꿔 흑자로 돌렸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기술 전문가가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경영자”라는 평가가 따라붙기 시작했다.

◆30년 관행 깨고 복귀...조직 재편에 HB M4 반등

지난 2024년 삼성전자는 DS부문장과 메모리사업부장을 30년 가까이 별도로 운영해 온 체계를 깨고 전영현 부회장에게 두 직책을 동시에 맡겼다. 7년 만의 반도체 현장 복귀였다.

당시 상황은 명확했다. HBM 시장 주도권이 SK하이닉스로 넘어간 상태였고, AI 반도체 핵심 부품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우려가 커졌다. 전 부회장은 주주총회에서 “AI 시장 트렌드를 조금 늦게 읽는 바람에 초기 시장을 놓쳤다”고 밝히며 대응 지언을 시인했다. 반도체 수장이 공개 석상에서 기술 판단 오류를 직접 인정한 것은 이례적이었다.

전영현 체제의 첫 변화는 조직이었다. 그는 삼성 반도체를 “덩치만 크고 반응은 느린 초식 공룡”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설계·검증·양산 전 과정을 재점검하도록 지시했고 낙관적 전망 중심의 보고 문화를 문제로 짚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문제를 숨기거나 희망치만 반영된 비현실적인 계획을 보고하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사내 메신저를 통해 직접 주문하기도 했다.

전략 기준도 바뀌었다. 그는 “고객 눈높이가 곧 기준”이라며 제품 중심 사고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했다. AI 반도체 시장에서는 성능뿐 아니라 납기 일정, 안정성 등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부상한 상황이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파운드리·패키징을 결합한 ‘원스톱’ 통합 대응으로 엔비디아, AMD 등 핵심 고객사를 공략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성과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2026년 2월 HBM4(6세대 고대역폭메모리) 양산 출하를 시작했다. 같은 해 3월에는 AMD와 AI 메모리·컴퓨팅 기술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전 부회장은 신년사에서 “HBM4는 고객들에게 ‘삼성이 돌아왔다’는 평가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2년의 변화는 숫자로 증명됐다. 삼성전자는 2026년 1분기 매출 133조9000억 원, 영업

이익 57조2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756% 증가한 수치다. DS부문은 매출 81조7000억 원, 영업이익 53조7000억 원으로 전사 이익의 약 94%를 담당했다. 반도체 업황 회복과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가 맞물린 결과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2026년 연간 영업이익이 3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전 부회장 스스로 “지난해 성과는 기술 리더십 복원을 위한 초석에 불과하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실제 업계도 회복 초기 단계라는 신중론이 나온다.

◆ 파운드리 적자·노조 갈등... 과제 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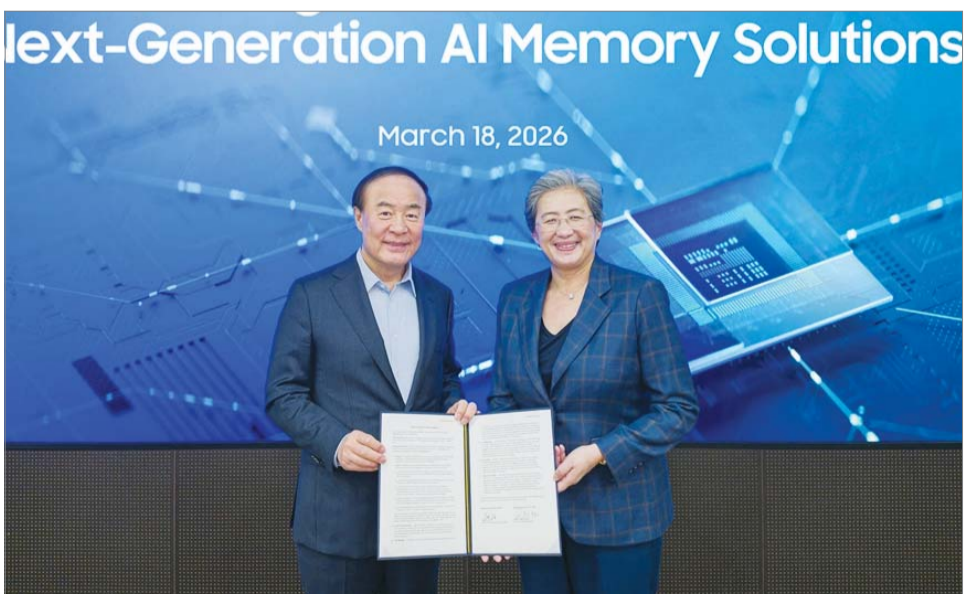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과제는 여전하다.

파운드리 사업은 개선 흐름 속에서도 아직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DS부문 내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사업부는 올해 1분기까지 5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TSMC와의 점유율 격차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 HBM 점유율도 SK하이닉스 53% 대비 삼성전자 35%로 격차가 남아 있다.

노사 문제도 이어지고 있다. DS부문 중심의 초기업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를 요구하며 5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대로 18일간 총파업에 나설 경우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최대 4% 감소할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DX부문 조합원이 다수인 동행노조는 4일 공동투쟁본부 탈퇴를 선언했다. DS부문 성과급 쏄림에 반발한 DX부문 직원들의 노조 탈퇴 신청도 하루 1000건을 넘어서는 등 노노(勞勞) 갈등도 확산하는 모습이다.

위기마다 구조를 바꾸는 전 부회장이 파운드리 수익성 회복과 노사안정이라는 다음 과제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전 부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과거와 같은 월등한 기술 우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속 성장이 가능한 모멘텀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지난 3월 18일 삼성전자의 최첨단 반도체 생산지인 평택 팽에서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왼쪽)과 리사수 AMD 최고경영자(CEO)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메트로 한줄뉴스



▲SSG, 어깨 다친 화이트 부상 대체 외국인 선수로 긴지로 영입
▲혼돈의 마무리 경쟁...리그 대표할 새로운 클로저는 누구?
/사진 뉴스스

▲‘중계권 청탁’ 대가로 금품수수한 KBO 임원, 2심에서도 무죄
▲바둑 신진서, 77개월 연속 랭킹 1위...김은지는 6개월 연속 여자 1위

▲강원 김대원, K리그1 11라운드 MVP...K리그2는 수원FC 하정우
▲시즌 첫 승 거둔 유현조, 여자 골프 세계랭킹 45위로 도약